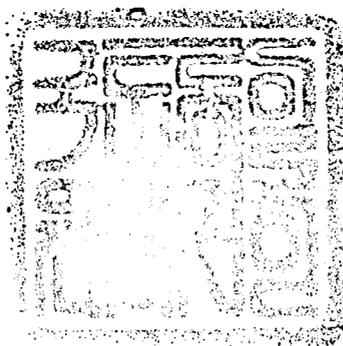


# 南北赤十字 實務代表接觸

— 第7次 會議錄 —

1989. 12.



946

國 土 統 一 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 3

2. 會議錄 ..... 7

附錄：代表團記者會見 ..... 99



#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11.27 (月) 10:00 ~ 13:01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北 側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榮 大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李 峻 熙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李 柄 雄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代表團 代表)</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박 영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常任委員)</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김 광 수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委員)</p> <p>정 덕 기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責任指導員)</p>



---

---

會 議 錄

---

---



## 2. 會 議 錄

〈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

南 (宋榮大) : 안녕하세요 ?

北 (박영수) : 아무래도 한번 더 잡아야 되겠네 ?

南 (宋榮大) : 이것 慣例아닙니까 ?

( 記者들 寫眞撮影 )

北 (박영수) : 자, 이제 그만하죠.

南 (宋榮大) : 날씨도 껏은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北 (박영수) : 예. 비 (雨) 가 많이 왔습니까 ?

南 (宋榮大) : 간밤에부터 비가 좀 내렸는데 이제 板門店에 올라오니까 조금 개는군요.

北 (박영수) : 서울에는 지금도 비가 옵니까 ?

南 (宋榮大) : 아침 出勤時間까지는 비가 왔었어요. 그쪽은 어떻습니까 ?

北 (박영수) : 어제 밤에 새벽 늦게까지 비가 왔어요. 7時가량까지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멎었습니다. 開城도 멎고 아마 平壤도 멎은것 같아요.

南 (李柄雄) : 그럼 어제 비오는데 내려왔군요 ?

北 (박영수) : 어제는 낮에는 비가 안오고.

南 (李柄雄) : 아, 내려올 때는 괜찮았고요 ?

北 (박영수) : 예. 저녁에, 저녁에 비가 왔어요. 오늘도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日氣豫報가 그러던데 ?

南 (宋榮大) : 오늘 저녁부터는 눈 (雪) 이 조금 내린다는 豫報가 있었어요.

北 (박영수) :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南(宋榮大) : 우리가 지난번 接觸에서 이 第2次 「訪問團」' 事業을 妥結  
짓지 못했다 하는 消息이 傳해지자 우리 겨레들 특히 우리側의 離散家  
族들의 失望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오늘 우리 接觸에 또한번의 期待와 希望을 걸고  
가슴을 조이면서 지켜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같은 離散家族들의 念願에 副應을 하고 또 이제 박선생 알  
다시피 「訪問團」날짜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은 時期의 促迫性을 考慮를 해서 오늘 接觸은 어떻게든지 妥結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오늘 討論時間을 좀 아끼기 위해서 會談運營方式을 지  
난번과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생각이 어떻습  
니까?

北(박영수) : 아 빨리 해야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複雜하고 바쁠 매일  
수록 事業을 成功시키는데서 主要한게 뭐냐 하면 덤비지 말고 차근 차  
근하게 解決方途를 잘 찾아 나가는 것 이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 난 원래 모든 일에서 樂觀論者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자  
고 決心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이런 信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接觸을 물러설대로 물러서왔단 말입니다.

우리 지난번 接觸 때도 그때 接觸도 마지막이다 그 얘기를 많이 했는  
데 그러나 오늘 接觸을 또한번 가졌는데 이제는 뒤로 물러설 날짜 같  
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南(宋榮大) : 그러므로.

北(박영수) : 그런 意味에서 오늘 어떻게 하나 이 會談接觸을 結束해야지요.

南(宋榮大) : 예. 이제 우리 接觸이 막바지에 와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중에 可否間에 決定을 내려서 大團圓의 幕을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意味에서 記者先生들 뭐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도 非公開이기 때문에 자리를 조금 讓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記者들 退場 및 會談場內 整頓)

北(김광수) : 宋先生! 좋은 案 가지고 왔어요?

南(宋榮大) : 좋은 案은 이미 여러번 냈지요.

北(김광수) : 오늘이야 同意하겠죠 뭐.

南(李柄雄) : 그쪽에서 낼 차례요 오늘은.

지난번에 상당히 늦었는데 뭐 開城가니까 많이 어두웠죠?

北(박영수) : 어두웠죠.

南(李柄雄) : 그럴 때면 그날 못 올라가지요?

北(박영수) : 못올라 가지요.

南(李柄雄) : 하룻밤 또 더 자고 올라가야지요?

北(박영수) : 3日 잡아야 됩니다, 3日.

南(李柄雄) : 3日? 집 떠나서 사흘씩이나!

南(宋榮大) : 開城-平壤 왔다갔다 할 때 乘用車를 利用합니까?

北(박영수) : 그저 汽車로도 利用하고 어떤 때 그쪽에 날씨가 좋으면 뭐

乘用車도 利用하고, 주로 汽車들을 利用합니다.

南(李峻熙) : 어떻게 보면 汽車가 便할거예요.

北(박영수) : 安全하고 좋지요.

北(김광수) : 安全하죠.

南(李柄雄) : 年內에 工事が 다 끝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北(박영수) : 아마 지금 뭐 상당히 빠른 速度로 進陟시키는데 그것은 아마 可否間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南(宋榮大) : 자, 이제 자리가 어느 程度 整頓된 것 같은데 시작을 하십시다.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오늘은 아마 내가 첫 發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6次 接觸 때 우리 雙方은 우리側의 大幅 讓步로 因해서 이 「訪問團」의 規模問題와 公演內容原則에 合意를 보는 등 적지않은 成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訪問團」의 團長을 비롯해서 訪問對象者·相逢周旋方法·公演回數 및 時間 등 몇가지 節次問題에 대한 意見差異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특히 貴側의 公演內容物에 대한 雙方間의 意見差異로 因해 우리의 實務接觸이 空轉된데 대해서 나로서는 꼭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第2次 「訪問團」 交換날짜가 이제 10日 앞으로 다가온 狀況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接觸을 妥結지어야 되겠다 하는 立場에서 우리側의 意見을 다시한번 簡略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貴側의 公演內容物 問題입니다.

지난번에 貴側은 「꽃파는 處女」 또는 「피바다」와 같은 「革命歌劇」을 우리側 地域에 와서 公演하겠다 하는 立場을 밝혔습니다.

이 問題에 대한 우리側의 見解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그와 같은 「革命歌劇」 公演은 赤十字의 基本原則과 우리가 지난번 接觸에서 合意한

公演內容原則 또 이번 藝術團 交換趣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南北關係 改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公演物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貴側의 革命歌劇은 相對側을 刺戟하지 않기로 한 雙方 合意事項 精神에 正面으로 違背되므로 그 立場을 撤回하고 相對側을 刺戟하지 않는 公演物을 準備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故鄉訪問團 關聯問題입니다.

故鄉訪問團 對象選定에 있어서 우리側은 「南과 北에 故鄉을 둔 離散家族들로 構成할 것」을 提議했고 또 貴側은 「서울·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을 爲主로 構成할 것」을 主張하고 있는데 離散家族들의 念願에 비추어 볼 때에 對象者의 制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離散家族들의 要求와 貴側 主張도 함께 考慮해서 合意書에 對象者 明示를 削除하는 方向에서 折衷이 可能하리라고 봅니다.

또 이 團長問題는 雙方 赤十字責任者 또는 副責任者中에서 各其 便利한대로 定하고 相逢 周旋方法도 雙方이 提案한 두개의 方案을 하나의 方案으로 統合하면 쉽게 解決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 藝術團 關聯事項입니다.

이 問題와 關聯해서 남아있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公演回數와 公演時間인데 우리는 이 公演回數 3回, 公演時間 150분이 매우 適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側 赤十字 藝術人들의 意思와 國際慣例에 符合이 되고 또 TV와 라디오의 公演實況 中繼 등을 考慮할 때 妥當한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側이 이 實務接觸을 하루라도 빨리 妥結지음으로써 12

월에 두 事業을 반드시 實現시키려는 立場에서 讓步에 讓步를 거듭해 내놓은 折衷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強調해 둡니다.

더욱이 貴側이 이 「꽃과는 處女」와 같은 特定 革命歌劇을 公演하기 위해서 公演時間과 回數를 맞추었다는 點을 감안할 때에 公演物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 굳이 이 3時間을 固執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이 3가지 事項에 대한 우리側 案을 中心으로 해서 오늘 協議를 簡單히 끝내고 合意書 文案檢討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貴側 意見이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예, 그러면 宋先生 이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전번 第6次 接觸 午後 討議될 當時 그때의 立場과 아무런 變化도 없다고 제가 理解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理解해도 되겠죠? 다른 變化가 없죠?

南(宋榮大): 예.

北(박영수): 그럼 거기에 대한 見解와 함께 오늘 接觸에 임하는 우리의 立場에 대해서 제가 簡單히 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次接觸 때 처음 만나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가 하면 이제는 時間的으로 더 물러설 자리가 없다. 그날 그 接觸으로서 이 問題討議를 끝내고 合意書を 作成하자고 서로 다같이 約束을 하고 接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모처럼 雙方 사이에 合意된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과 第11次 本會談 再開問題를 年內에 어떻게 하나 成事시키려는 이런 진지한 立場으로부터 事實上 제일 難問題로 남아있던 이 「訪問團」 規模問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大幅的인 讓步로 해서 이 問題

가 妥結되게 되었습니다.

事實上 總規模 571名으로 하고 그 안에서 各其 便利한대로 할데 대한 우리의 主張은, 提案은 그 前 接觸에서 宋先生이 내놓았던 案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었고 또 貴側의 立場을 充分히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訪問團」 交換問題가 전번 接觸에서 妥結된 것은 우리側의 大幅的인 讓步에 의한 것이라고 저는 再三 強調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接觸에서 가장 難問題로 남아있던 「訪問團」 規模問題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雙方 赤十字 團體들은 이미 合意된 12月 8日과 12月 15日에 두 人道的인 問題들을 成事시킬 수 있으리라는 이런 期待와 希望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번 接觸에서 몇가지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는 몇가지 問題를 놓고 意見接近을 보지못한 것으로 해서 6次接觸은 結束되지 못했고 7次接觸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특히는 지금 온겨레 특히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失望을 禁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 전번 接觸이 끝난 以後에 貴側 放送들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결같이 貴側 放送들에서는 『年內에 이 두 人道的 事業의 成事が 不透明해졌다』 이런 論評들을 내고있는 事實들을 傳해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午前 7時 放送報道에 따르면 貴側의 赤十字 지금 實務代表接觸한 關係者의 말이라고 하면서 『오늘 接觸에서 結果를 보지못한다면 年內에는 不可能하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報道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쪽 赤十字 關係者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과 第11次 本會談 再開問題 이 두가지 事業을 年內에 結束시키려는 이 앞길에는 매우 嚴重한 難關이 造成됐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는 이 問題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嚴重한 事態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局面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이 問題를 놓고 우리는 전번 接觸結果를 다시금 따져보면서 다음과 같은 問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지금 問題로도 될 수 없고 또 너무나도 明白한 이 藝術公演의 內容原則과 回數·時間, 「訪問團」 團長, 故鄉訪問團 對象 이 問題에 대해서 그쪽에서 合意를 拒否한데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公演內容 設定問題만 가지고도 지난번 接觸 때 얼마나 많은 時間을 消費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提起할 때 왜 이 問題를, 왜 內容原則을 設定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 1次 「訪問團」交換 때의 前例를 가지고 納得할만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藝術公演의 回數와 時間問題, 發展的으로 한다는 雙方 合意事項에 비추어 볼 때 回數도 늘이고 公演時間도 늘이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自然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쪽에서 이 問題에 대한 合意를 拒否해왔기 때문에 이 問題 역시 時間을 끌었습니다.

이 「訪問團」 團長問題·故鄉訪問團 對象規定問題 이 問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우리는 이 問題에서는 더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案대로 그저 하면 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이 2次 「訪問團」 交換事業이 順調롭게 될 수 있고 또 互相 禮儀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指適하지 않을 수 없는 問題는 지난번 接觸때의 그쪽 主張들을 綜合해놓고 볼 때 이 合意書 自體를 有名無實하게 만들려는 이런 意思, 그쪽 立場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實例를 들어서 故鄉訪問團 對象을 規定하지 말자든지 또 「訪問團」團長問題라든지 이런 것들 「各其 便利한대로 하자」 이렇게 된다면 結局 合意書 自體가 有名無實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번에도 제가 強調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式으로 할려면 合意書 自體가 必要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하나 強調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問題는 지난번 接觸 때 그쪽에서 이미 合意를 보았던 問題들을 다시금 取消하는 方法으로 問題討議에 複雜性을 造成한 事實입니다.

故鄉訪問團 對象問題에서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사람들을 爲主로 한다」고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合意했던 問題인데 이것을 또 1時間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그 主張을 바꾸고 새로운 主張을 들고 나오므로써 이 問題討議에 일련의 複雜性이 造成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지금 이 時刻까지도 이와같이 아무런 複雜한 問題도 아니고 특히는 너무나도 客觀들이 볼 때 明白한 이런 事實들에 대해서 貴側이 성근하게 나오지 않고 人爲的인, 어떻게 보면 人爲的인 難關을 造成하는 것과 같은 이런 態度를 取함으로 해서 지난번 接觸에서 適當 合意볼 수 있었던 問題들 까지도 合意를 보지 못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얘기한 藝術公演內容問題와 關聯해서 우리가 지난번 接觸 때 왜 우리가 藝術團 公演時間을 2~3時間 程度로 해야되느냐? 이 問題를 解說하면서 우리가 理解를 돕는 見地에서 「꽃파는 處女」 歌劇 또 「피바다」와 같은 이런 歌劇들을 서울에 가지고 나가서 公演하기 위해서 公演時間을 3時間 程度는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宋先生 첫 發言에서 『이것은 赤十字의 原則과 公演內容 雙方 合意原則 또 藝術團 交換趣旨에 맞지 않고 또 南北關係 改善에도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種目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또 雙方 合意事項을 言及하면서 「刺戟하지 않는다」는 이 雙方 合意事項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問題에 대해서 答辯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한번 그 問題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明白히 밝히면 왜 우리가 이번에 第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 交換事業을 할 때에 歌劇 「꽃파는 處女」 또는 「피바다」와 같은 이런 歌劇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 藝術人들은 또 저를 包含해서 우리는 南側에서 最近 가까운 年間に 여러나라의 劇團들을 招請해서 서울에서 公演을 했다는 事實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蘇聯 「볼쇼이」劇團의 「발레」團도 와서 公演을 했고 또 이탈리아의 「스칼라」歌劇團도 와서 歌劇公演을 했고 뭐 其他 요전번에 宋先生이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其他 여러 나라들에서도 劇團들이 와서

公演을 했다. 이 事實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藝術人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南側에서 最近에 劇場도 하나 좋은걸 지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劇場이라고 南側에서 宣傳한 出版物들 紹介하는걸 보면 상당히 요란하게 宣傳을 하고 있던데 그것들을, 그 事實을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事實들을 알고 있는 우리 藝術人들은 이번 藝術團 交換이 進行되면 自己들도 가장 훌륭한 歌劇을 하나 가지고 나가서 서울에서 公演하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一致한 希望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北半部에서 가장 훌륭한 歌劇이 어느 것이냐 할 때 이것은 우리 藝術界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꽃파는 處女」입니다.

이 「꽃파는 處女」로 말하면 전번에 우리가 簡單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創作된지 17年 지났는데 그 사이에 1,000回 公演을 했습니다. 外國公演도 많고 그 가운데는 뭐 「프랑스」·日本·「이탈리아」의 資本主義 나라들 公演 많고 3世界 나라들 많고 거기에 가서 世界 大 傑作으로 이미 評價받은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藝術人들은 藝術團을 다시 交換하는 이번엔 이런 歌劇들을 한번 가지고 나가서 公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藝術人들의 希望을 實現시켜 주는 것이 좋으면 좋았지 나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歌劇公演問題와 關聯해서는 雙方 合意事項에 全적으로 符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接觸에서 藝術公演 內容을 選定하는데서 어떤 原則에 서야 하느냐 하는 이 問題와 關聯해서 세가지로 分明히 合意를

했습니다.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는 것」·「健全한 것으로 한다는 것」·「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세가지 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우리의 歌劇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는 아무런 違反하는 側面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接觸에서 우리는 또 藝術公演 形式問題와 關聯해서 「雙方은 노래와 춤·歌劇 등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이 合意事項은 明白한 合意事項인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도 이것은 全的으로 符合되는 內容입니다.

그래서 宋先生 이제 뭐 『公演內容原則 合意事項에도 맞지않고 交換趣旨에도 맞지않고 더욱이 南北關係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말씀들을 했는데 내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일단 이 程度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 分明히 할 것은 『相對方을 刺戟하지 않기로 한 合意事項에 正面으로 違背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誤解가 아니면 아주 不正確한 主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藝術公演 內容設定하는데 있어서 雙方이 지켜야 할 原則에는 「刺戟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合意事項이 없습니다. 分明히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問題를 가지고 지난번에 큰 1時間 半에 걸쳐서 그 以上에 걸쳐서 우리가 論議한 事實입니다.

그 合意 全過程을 제가 對話錄을 이제 公開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럴 必要는 없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全的으로 不當한 主張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이 우리보고 『藝術公演內容을 다른 것으로 바꿔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러한 式의 對話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自己意見은 글썽 그 公演內容問題에 대한 意見은 혹시 發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보고 雙方이 合意한 이 原則에 맞는 主張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것은 會談禮儀上 見地에서도 어긋나는 所行으로 認定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기를 우리가 希望을 期待를 하면서 저는 이 이상 더 길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이 接觸을 끝내야 하는 마당에서 그쪽에서 더 이제 固執을 하지말고 우리 革命歌劇 「꽃파는 處女」 이 問題를 성근하게 받아 들이고 其他 「訪問團」 故鄉訪問團 對象者問題·「訪問團」 團長問題 그 다음에 藝術公演 回數·時間問題 이 問題에 대해서도 우리의 主張을 그저 성근하게 받아들여서 빨리 合意書 討議에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希望합니다.

南(宋榮大) : 말씀 다하셨어요?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박선생 冒頭에 짧게 이야기 하겠다고 했음에도 不拘하고 상당히 긴 發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側 첫 發言에 대해서 變換한 것이 없다고 말했음에도 不拘하고 지금 貴側 첫 發言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變化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確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선생이 冒頭에 우리側의 會談姿勢를 좋지않게 얘기 하면서 지금까지 合意가 遲延된 責任을 우리側에 轉嫁한데 대해서도 나로서는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重要한 問題가 역시 貴側의 公演內容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問題에 관해서 理解를 좀 돕기 위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아까 첫 發言에서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赤十字의 基本原則에 違背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合意한 公演內容原則에 違背가 되고 이번 藝術團 交換趣旨에도 맞지않고 더군다나 南北關係改善에 좋지않는 影響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撤回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點을 조금 더 詳細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赤十字 基本原則에 正面으로 違背됩니다.

이번 藝術團 交換은 아시는 바와같이 赤十字次元에서 推進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赤十字의 基本原則과 精神에 符合되는 方向에서 이 事業이 實現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赤十字의 原則은 뭐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같이 일곱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重要的 것 몇가지 말씀드리면 이 「公平的 原則」·「中立의 原則」·「人道의 原則」이 있습니다.

여기 이 「公平的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赤十字는 國籍·人種·階級에 대하여 어떠한 差別도 하지않는다」 하는 內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赤十字가 階級打破를 위한 道具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中立의 原則」은 뭐냐? 「赤十字가 政治的·理念的 性格을 띤 論爭에 介入해서는 안된다」하는 얘기입니다. 即 政治性を 排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人道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시는 바와같이 人間의 苦難을 豫防·輕減시키고 또 相互 理解와 友誼와 平和를 增進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貴側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 「꽃파는 處女」·「피바다」의 性

格은 어떤 것인가? 지난번 接觸 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階級性·革命性·政治理念性を 內包하고 있습니다.

貴側에서 發刊한 文學藝術辭典을 내가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꽃과는 處女」에 관해서 이렇게 記述하고 있습니다.

『「꽃과는 處女」는 人民에게 革命鬪爭의 眞理를 깨우쳐주는 참다운 生活의 教科書로서 사람들을 階級的 원수들과 착취제도를 反對하는 聖스러운 革命鬪爭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貴側에서 發刊한 百科全書에 의하면 『「꽃과는 處女」는 主體思想과 主體的 文藝思想을 完璧하게 具現하고 있는 名作이다』 하고 記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貴側에서 내놓은 文學藝術辭典에 볼 것 같으면 「피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說明하고 있습니다.

『「피바다」는 被壓迫民族과 被搾取階級인 自身の 解放을 위해서는 首領의 領導 밑에 손에 武裝을 들고 暴力으로 맞서야 하며 革命的 武力으로 反革命的 武力을 擊破해야 한다는 眞理를 담고 있다』고 說明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꽃과는 處女」·「피바다」와 關聯해서 말하고 있는 「階級的 원수」·「革命鬪爭」·「主體思想」·「首領의 領導」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意味합니까? 그것은 階級性·革命性·政治理念性を 分明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赤十字가 階級을 超越해야 되고 政治性を 排除해야 되고 友誼와 平和增進에 寄與해야된다 라고 하는 赤十字 本來의 原則과 正面으로 背馳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階級的인 怨恨·敵愾心を 鼓吹하는 內容의 「꽃피는 處女」는 사랑과 博愛를 基本으로 하는 赤十字精神에 違背된다 하는 말입니다.

또 이 革命鬪爭과 人道主義는 兩立할 수 없습니다. 「피바다」와 博愛精神은 調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赤十字人들이 이러한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또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우리 雙方이 지난번 接觸에서 合意한 公演內容原則에 違背됩니다. 아까 박선생은 『革命歌劇이 雙方合意에 符合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결코 생각안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合意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가지 입니다. 첫째는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 둘째는 健全한 內容으로 한다. 셋째는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合意한 이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는다」하는 內容속에는 「相對方을 刺戟하지 않는다」는 意味가 包含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問題 가지고 우리가 討論을 하면서 내가 分明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誹謗·中傷하지 않는다는 말속에서 『刺戟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을 留意·確認하면서 同意를 했어요. 그때 貴側 代表들도 分明히 말하기를 『이 誹謗·中傷하지 않는다는 말속에는 「刺戟하지 않는다」는 말이 包含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 저 記錄 갖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 「刺戟」이라고 하는 點에서 볼 때 「꽃피는 處女」는 政治的 「멧세지」를 담고있기 때문에 우리를 刺戟합니다.

첫째로 그 作品이 階級性·革命性·政治理念性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特定體制와 社會變革의 當爲性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特定社會를 變革시켜야 된다고 하는 當爲性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特定社會 建設을 暗示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거예요.

또하나 이 「꽃파는 處女」속에는 貴側의 特定人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 問題에 관해서는 貴側의 立場과 體面을 考慮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합니다.

結局 이와같은 「꽃파는 處女」가 가지고 있는 이 두가지 政治的 「메세지」는 分明히 우리側을 刺戟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相對側을 刺戟하지 않기로 한 合意事項을 貴側에서는 여기고 있다는 것을 分明히 말해둡니다.

그리고 박선생 아까 「刺戟」이라는 것을 妙하게 解釋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相對方을 刺戟하느냐 안하느냐 이 判斷問題는 어디까지나 觀覽者側에서 判斷하는 것입니다. 刺戟與否는 公演側에서 判斷할 問題가 아니고 觀覽者側에서 判斷할 問題예요.

그러니까 觀覽者인 우리側에서 이 「꽃파는 處女」와 「피바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은 貴側, 우리 以上 더 잘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觀覽者側에서 公演內容物과 關聯해서 어떤 問題를 指摘해주면 相互主義에 立脚해서 그것을 尊重해주는 것이 道理입니다.

지난번 接觸 때 우리가 「2000年代」 무용에 대한 貴側의 拒否感을 考慮해서 『이번에는 그와같은 것은 없다』라고 說明했습니다. 그때 우리 李峻熙代表가 누누이 說明했어요.

다시 말해서 「2000年代」作品에 대한 貴側의 拒否感을 考慮해서 우

리가 再考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貴側도 이 「꽃파는 處女」에 대한 우리側의 생각을 考慮해서 再考하는 것이 마땅한 道理입니다.

또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藝術團 交換趣旨에 違背됩니다. 이번 藝術團 交換의 目的이 됩니까?

우리가 理解하기로는 故鄉訪問團의 交換雰圍氣를 좋게 해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離散家族들이 血肉을 만나는 그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相逢의 기쁨과 希望을 함께 나누는 참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相互間에 理解와 信賴를 增進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貴側의 그와같은 革命的 覺醒을 促求하는 公演을 할 경우에 離散家族들의 相逢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相逢에 찬물을 끼얹고 離散家族問題 解決에 難關을 造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자칫하면 人道的 事業을 後退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南北關係 改善에도 나쁜 影響을 超來하게 됩니다. 우리 雙方은 離散家族問題 解決을 위해서 어떤 合意를 했느냐? 박선생 자주 強調하는 部分 하나 있습니다.

우리 赤十字인들이 統一의 디딤돌 役割을 해야된다 하는 이야기 자주 하시는 것 내가 듣고 있는데.

北(박영수) : 좋은 原則이죠 이것.

南(宋榮大) : 그런데 우리 赤十字인들이 南北關係 改善·統一의 디딤돌 役割을 할려고 할 경우에 꼭 留意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統一될 때까지는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하고 尊重하는 姿勢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꽃파는 處女」속에 담겨진 이 政治的 「멧세지」는 우리 體制를 否定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까만 그 內容이 資本地主를 打破하고 共產社會建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 作品의 過程이 貴側의 特定人이 이끄는 革命軍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體制를 否定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貴側의 革命歌劇公演은 南北關係 改善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惡化시킬 수 있다. 이런 點에서 이 革命歌劇 公演立場은 撤回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까 박선생이 自己側에서는 『規模問題 等等 해서 讓步 많이 했는데 南側에서 讓步를 하지않고 있다』 이 責任을 갖다가 우리에게 자꾸 轉嫁시키는 말을 했는데 내 거기에 대해서 이 點을 하나 환기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7차례 接觸하는 過程을 통해서 이 「訪問團」基本問題와 關聯해서 우리側의 讓步로 因해서 合意를 이룩한 것이 7가지 입니다.

보십시오. 時期問題 우리가 讓步했습니다, 訪問地問題 讓步했습니다, 實況中繼問題 讓步했습니다, 訪問期間 讓步했습니다, 規模 讓步했습니다, 記者 및 隨行員數 讓步했습니다, 심지어 公演內容原則도 讓步했습니다.

자 그런데 貴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姿勢를 보였느냐? 藝術團數 겨우 100名 줄인 것 以外에 하나도 讓步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基本問題에 關聯된 事項이고.

또 節次問題에 관해서 보십시오. 지금 이 節次問題와 關聯해서 未合意 事項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6가지 입니다. 貴側의 公演內容物을 비롯해

서 公演時間·回數, 團長, 對象者選定問題, 相逢方法 이 6가지가 지금 未合意 事項으로 남아 있는데 이 6가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妥結시키기 위해서 5가지 部門에 折衷案을 이미 내놓았어요.

자, 公演時間 우리 지난번에 折衷案 냈습니다. 回數도 냈지요. 團長·對象者選定·相逢方法 折衷案 다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比해서 貴側에 이 未合意 事項 6個 가운데 折衷案 내놓은 것은 딱 한가지 예요. 뭐냐? 公演時間 그것 하나 以外에 折衷案 내놓은 것 없습니다.

이렇게 雙方의 그동안의 여러가지 提案·主張을 比較해놓고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結論이 自然的으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 「訪問團」 事業을 妥結짓기 위해서 妥協的 姿勢를 보였느냐 明明白白히 나타납니다. 이것밖에 記者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많이 讓步했나.

이 한가지 事實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貴側이 會談姿勢에 관해서 相對方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責任轉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事實 오늘 내가 첫 發言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지금 이 막바지에 와가지고 그동안의 經緯를 들추면서 相對方의 對話姿勢 같은 것 나는 추호도 생각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未合意 事項 이 것 빨리 折衷해가지고 매듭지으려고 나왔는데 貴側이 첫 發言에서 그와 같은 問題를 提起했기 때문에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이것 부연해서 說明드립니다.

北(김광수) : 올바로 잡아줘?

北(박영수) : 올바로 잡아주는거야 뭐, 우리 다 알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問題인데 다 發言했습니까?

南(宋榮大) : 예.

北(박영수) : 역시 나보고 길게 한다고 그러더니 相當히 長文의 發言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宋先生한테 이 「피바다」·「꽃파는 處女」問題와 關聯해서 우리 「로동신문」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내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나왔는데 내가 그래서 거기에 答辯할 準備를 뭐 잘했지는 못했지마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歌劇 「꽃파는 處女」·「피바다」 이 問題는 絶對로 못받아들이겠다 이런 立場을 이제 再三 明白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이와 關聯해서 뭐 赤十字原則·內容, 藝術公演內容原則·趣旨, 南北關係 첫 發言에서 한 內容들을 다시금 強調했는데 이런 條件에서 그럼 내가 조금더 그럼 그쪽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죠.

南(宋榮大) : 아, 이번에도 길게 하시겠습니까?

北(박영수) : 난 좀 짧게 하겠어요.

南(宋榮大) : 좋습니다. 짧게 합시다.

北(박영수) : 宋先生은 지금 우리 歌劇 이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를 못받겠다고 하는 主要 理由로서 하나가 『이것은 革命鬪爭을 煽動하는 것이고 階級鬪爭을 煽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받겠다』이런 얘기를 하며 여러가지 問題를 論據를 지금 세웠습니다.

研究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南(宋榮大) : 아, 많이했죠.

北(박영수) : 예. 그러나 이걸 제가 보기에는 역시 論據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김광수) : 方向 喪失한 것 같구만.

北(박영수) : 이거 지금 억지일 뿐 아니라 雙方 合意事項을 自己式대로 解釋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나 이것을 拒否하기 위한 이 口實을 만들어 내려는 그런 努力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우선 雙方 合意事項에 이 「꽃파는 處女」 歌劇이 맞느냐 안맞느냐 이 問題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論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接觸에서 우리는 藝術公演의 內容과 形式問題에서 다음과 같은 原則에 대해서 明白히 더 論議할 餘地없이 合意를 했습니다.

그 合意事項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宋先生도 아주 正確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 部分의 發言에 이제 조금 問題가 있지마는.

하나는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 둘째 「健全한 것으로 한다」, 셋째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는다」, 「藝術公演은 노래와 춤·歌劇 등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이 形式問題와 關聯해서는 아무런 이제 그 反對 論據를 세우지 못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明白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더 세울래야 세울수 없는거죠.

그러면 이 原則들에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 이 우리 歌劇들이 왜 맞는가? 어떻게 맞는가?

一般的으로 우선 첫째로 「民族的인 것으로 되어야 된다」 이 原則인데 民族的인 것이냐 아니냐? 이 論議를 우선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가 이게 民族的인 것이냐? 아니냐?

우리는 分明히 이것은 徹頭徹尾 秋毫의 再論의 餘地도 없이 民族的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에서 다른 意見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南(宋榮大) : 아니 아니, 없을 수가 없어요.

北(박영수) : 一般的으로 어떤 藝術作品이 民族的인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作品에 反映되고 있는 社會的 背景과 作品의 內容 또 人物形象 그리고 作品을 構成하는 모든 要素들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는데 따라 아마 區別되겠죠, 規定이 되겠죠.

우선 우리의 이 歌劇들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現實을 反映한 것이 아니다, 다른 民族의 現實을 反映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民族이 不幸하게도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 統治下에 있을 때 그때의, 그때의 社會現實을 反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作品의 內容問題에 대해서 말할 때 日帝植民地 統治下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民族의 獨立을 希望하고 그것을 위해서 鬪爭해온 우리 民族의 志向과 意志를 反映하고 있는 作品입니다.

그리고 이 歌劇에 나오는 모든 노래와 춤·旋律·歌詞·舞臺裝置 이 모든 것이 民族的인 것입니다. 徹底히 여기에 民族的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로 雙方이 合意한 藝術公演內容原則 「健全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 이 合意事項에 비추어 볼 때도 이것은 더 論議할 餘地없습니다. 이 問題 역시.

藝術作品을 놓고 말할 때 그것이 健全하나 健全하지 못하나 하는 問題를 놓고 말할 때 그 基準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內容과 形式面에서 優雅하고 또 高尚하면서도 民族的인 情緒와 感情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 問題입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歌劇에는 頹廢的인 一切 사소한 要素도 없습니다. 아주 健全한 內容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歌劇들에는 西歐式의 이

런 「디스코」도 이런 것도 없고 무용면에서 그 어떤 西歐羅巴나 다른 나라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問題는 세번째 原則입니다. 「誹謗·中傷하지 않는다」 이 原則인데 여기서는 北과 南의 어느 一方을 讚揚하거나 宣傳하거나 誹謗하는 部分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作品의 背景 自體가 우리 民族이 日帝植民地 統治下에 있었던 解放前 우리나라의 現實을, 어느 農村에서 있는 事實을 그린 作品입니다.

그리고 이 歌劇에서의 그 葛藤關係를 지금 그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葛藤關係 역시 뭐인가? 우리 民族과 侵略者인 日本帝國主義間의 矛盾 그리고 지난날 權勢와 財物을 등대고 侵略者와 結託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살게 굴던 이런 惡德地主와 머슴간의 모순입니다. 내가 이 矛盾, 地主에 대해서도 規定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留意를 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作品은 北과 南의 어느 한 一方을 誹難하거나 또 讚揚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 벌써 이 作品은 지금으로부터 60年前, 60餘年前에 日帝植民地 統治下에 우리 民族이 있을 때 祖國光復을 위한 鬪爭을 벌일 때 創作·公演된 作品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問題가 提起되는가? 合意事項原則에 違反된다고 그러면서 「刺戟」이란 表現이 있는데 내가 아까도 앞에서 簡單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雙方 合意事項은 內容設定하는 原則問題 原則에서 세가지 이제 내가 읽은 그 이상 없습니다.

물론 우리 여기에 대해서 初期에 內容原則을 論議하던 初期 지난번

接觸 午前時間에 「刺戟」이라는 問題가 많이 論議되었습니다. 原來 우리가 「刺戟」이라는 表現을 內容原則을 規定할 때 쓰지말자는데는 몇가지 理由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誹謗·中傷이라는 그것 自體가 역시 刺戟이라는 말과 一脈相通하는 部分이 있다. 둘째로 刺戟을 이제 宋先生 말씀 잘했습니다, 『刺戟이라고 하는 것은 公演을 보는 側에서 刺戟을 받느냐 안받느냐 判斷한다』하는데 이 그놈의 「刺戟」이라는 表現, 單語內容 그것이 똑똑한 基準이 없습니다. 이게 「고무줄 자(尺)」요, 내가 보건데는 고무줄 자와 같은 基準, 基準입니다.

이런 것을 그 어떤 原則에서 規定할 수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어느 걸 받기 싫으면 『이건 우리를 刺戟한다』 우리가 보건데는 刺戟하는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놈의 「刺戟」이라는 것은 一方의 任意의 立場과 姿勢에 의해서 左右될 수 있는 이런 表現입니다. 그런 內容입니다.

南(李峻熙) : 그래서 뽑은거예요? 그러면 1次 때 것을?

北(박영수) : 그래서 이런 것은 雙方 解釋에서 이러저러한 서로 다른 解釋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部門은 原則을 規定하는데 없다. 이 問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論議했습니까? 아마 한 時間半 두어 時間 동안 論議했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論議하다가 마지막에 合意된 것이 뭐냐?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健全한 것으로 한다」·「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이 內容原則問題와 關聯해서는 이 말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貴側이 明白히 立場을 表示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問題가 論議될 것 같아서 그 問題에 대한 論議過程을 錄音을 푼 原文도 가져왔고 正 必要

하다면 내 우리 錄音을 한번 들러드리죠.

南(宋榮大) : 예,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봐요.

北(박영수) : 가만 조금만 계십시오. 그래서 이 原則問題 여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이 強辯입니다. 아까 내 들은 宋先生말씀은 제가 強辯이라고 한마디로 表現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두번째로 우리 「꽃과는 處女」가 『藝術團 交換趣旨에 맞지 않는다, 目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참 이거 나는 그것을 도무지 理解할 수가 없습니다.

藝術團 우리 交換하는 目的이 뭐냐? 趣旨이 뭐냐? 이것은 아까 宋先生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故鄉訪問團 對象들의 相逢 雰圍氣를 좋게 해주는데 물론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重要한 側面은 이 民族的인 和解와 團합의 雰圍氣, 對決의 雰圍氣가 아니라 團합의 雰圍氣를 造成하는데 있다. 여기에 重要한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赤十字가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서 先導的·先驅者的 役割을 하자 해서 지금 藝術團을 交換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北南사이에 民族的 和解와 團합을 圖謀하자면 지금 重要한 問題가 뭐냐? 北이 南을 알고 南이 北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해서는 和解하고 團합이라는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大前提입니다.

南朝鮮 人民들이 北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무얼 아는 것이 重要한가? 제가 생각하건데는 우리 社會現實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社會現實을 바로 알아야 되요. 이 社會現實을 바로 아는데서 이 「꽃과는 處女」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 重要하다.

말하자면 「꽃파는 處女」를 보면 南朝鮮 人民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北半部의 人民들이 무엇을 指向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貴重히 여기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을 歌劇 한 편을 통해서 다 理解할 수 있습니다.

뭐 이 問題에 대해서 더 길게 내 이야기를 양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民族藝術團 交換의 趣旨問題와 關聯해서는 더는 「꽃파는 處女」問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아마 全的으로 符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南(李柄雄) :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南(宋榮大) : 조금 기다리세요.

北(박영수) : 가만 제가 答辯을 채 못했어요.

南(李柄雄) : 너무 길어서 뭐 오늘 저녁까지 갈 것 같아요.

北(박영수) : 셋째로 이제 宋先生이 性格問題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性格問題 結局 性格이 뭐냐? 무얼 가지고 性格이라고 하겠는가? 이 藝術作品의 葛藤關係를 아마 놓고 많이 이야기 되겠죠? 葛藤關係를 많이 놓고 할겁니다.

아까도 제가 簡單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歌劇 「꽃파는 處女」에서의 葛藤은 徹頭徹尾 日帝와 우리나라를 強占한 日帝와 우리民族間的 矛盾關係를 反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日帝를 등에 업고 갖은 몹쓸 짓을 하던 어떤 地主와 그 머슴간의 葛藤입니다.

그러나 總體的으로 基本種子는 뭐이나 하면 「反日」·「抗日」입니다. 거기서 「革命」이라고 하면 「抗日革命」입니다, 「反日革命」입니다. 아마 이거야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36年 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強占하

고 갖은 못된 짓을 한 日帝를 反對해서 우리 民族이 鬪爭해온 이것을 말해주는 歌劇을 마다할 수는 아마 그쪽에서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問題와 關聯해서 그쪽에 한번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게 있어요. 南朝鮮에도 이 葛藤關係를 적어도 이 「꽃파는 處女」와 같이 設定한 이런 藝術作品들이 많다.

南(李峻熙) : 그것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자꾸 앞 部分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北(박영수) : 그것 내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가만, 조금 계세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이야기를 듣고 뭐 이야기할 機會야 많잖아요?

南(李峻熙) : 앞 部分만 자꾸 이야기 하는데.

北(김광수) : 뭐 이야기할 時間 많으니까 마저 듣고 이야기 하세요.

南(李柄雄) : 자꾸 그렇게 혼자 길게 이야기 말고 이야기를 簡單히 簡單히 끝내자고요.

北(정덕기) : 充分히 우리 서로 意見을 나눕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南(李柄雄) : 必要없는 이야기를 자꾸 붙여서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刺戟은 서로 避하자』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면 그것을 이쪽에서 刺戟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벌써 그쪽에서 안다 이런 이야기예요. 뻔히 알면서 뭘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北(정덕기) : 아니 좀 가만히 계세요. 거 團長이 이야기 하는데.

北(박영수) : 가만 이거 저 우리 會談하면서 없던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는 어떤 그 大原則에서 지금까지 會談을 해왔는가 하면 상대방이 적어도 團長이 發言할 때에는 아주 잘 듣고 그 다음에 發言하는게

웁습니다.

北(정덕기) : 나도 지금 發言하고 싶지만 안하지 않습니까?

南(宋榮大) : 그런데 아까 『簡單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달라는 이야기죠.

北(박영수) : 「簡單히」라는 基準은 다 제 나름입니다. 宋先生도 簡單히 하겠다고 그리고 무려 20分동안이나 發言을 했습니다.

南(宋榮大) : 아, 나는 첫 發言 내가 簡單히 끝냈잖아요?

北(박영수) : 아 거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 자꾸 時間잡니다. 내가 좀 빨리 이 發言을 끝내야 되겠어요.

거기에서 남쪽에서 이제 널리 愛讀되고 있는 作品들 가운데 뭐 「張吉山」이요 「土地」 뭐 「人間市場」·「서울은 滿員이다」 뭐 등등 다 꼽지않겠어요. 내 그중에 책 몇권은 내가 直接 본 책들입니다.

뭐 大同小異합니다. 그 作品에서 葛藤關係들을 놓고보면 우리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나 大同小異하다. 어떤 面에서는 더 深刻하게 葛藤關係들이 設定되어 있습니다. 내 그 內容은 앞으로 좀더 이야기하라면 내 하겠습니다. 내 作品을 이제 적은 作品들 가운데 내가 본 것들도 이제 몇개가 있기 때문에 그 內容들을 이야기 하려면 하겠는데, 이런 作品들이 現實적으로 南朝鮮의 여러 劇團들 뭐 「演友劇團」이라는 것도 있더 만요? 거 지금까지 報道된 資料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公演되고 있습니다 이런 作品들이.

그리고 「革命」이라는 말을 자꾸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革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4.19 革命」이요 지어는 「5.16 革命」이요 뭐 여러가지 革命들 많이 써요.

그런데 굳이 딱 우리의 「꽃파는 處女」 이 歌劇에 대해서만 이 「革命歌劇」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걸 못받아들이겠다고 할 理由야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簡單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저 「2000年代」에 대한 拒否感을 考慮해서 自己네들 이것 再考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그쪽에서 「꽃파는 處女」가 刺戟을 받는다니까 再考해야 된다 이런 論理인데.

이런 式의 會談 이게 안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데는. 이게 正當한 것 같은, 正當한 것을 놓고 서로 意見差異가 있을 때 하나씩 折衷을 하는거지 民族的이 아닌 것을 가지고 公演을 했던 것 이번에 그만두는 것과 또 健全하지 않은 것을 안하겠다고 하는 것과 民族的이고 健全한 것을 하는 것 이것을 交換條件으로 提起하면 안됩니다.

發言이 길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저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統一될 때까지 相對方 體制를 認定한다, 體制와 制度를 認定한다. 이거 우리 主張입니다.

두 制度를 그대로 두고 統一해야 된다. 思想과 制度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基礎위에서 統一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主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藝術交流할 때에는 制度와 體制를 인정하는 그 자세와 입장에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作品이 그쪽에서 말하는 가운데 뭐 더 이야기를 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資本家와 地主를 打倒하는 共產革命, 절대로 이 「피바다」에는 共產主義革命·社會主義革命을 선동하는게 없습니다. 내가 이걸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南(宋榮大) : 그럼 제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생이 「꽃과는 處女」의 성격에 관해서 『勸善懲惡·反外勢·反封建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理解하기로는 이것은 하나의 修飾辭에 不過합니다, 修飾辭에 不過해요. 本質은 아까 指摘한대로 階級鬭爭·革命鬭爭·政治理念 傳播에 있습니다.

貴側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藝術은 當代의 社會相을 反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北의 社會相을 反映한 作品을 南쪽에 가져와서 公演하는게 뭐가 나쁘냐」 하는 論理인데, 그렇다면 우리側에서는 이런 質問을 提起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側에서도 自由民主主義社會의 우월성을 反映한 그런 作品을 가지고 貴側에 가서 公演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이런 疑問을 提起할 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또 貴側에서 「꽃과는 處女」·「피바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合意한 세가지 原則에 符合이 된다 하는 것을 진짜 強辯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크게 잘못 解釋하고 있다고 봅니다.

民族的인 것, 이 民族이란 말에 대해서는 우리 南北 雙方間에 概念上 差異가 있는 것 認定합니다 認定해요. 民族이라는 말 이걸 어떻게 풀이하느냐? 概念上의 차이가 있는 것 認定해요.

그 問題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論爭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論爭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 分明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民族的인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뜻은 이겁니다. 우리민족이면 누구나 다 共有하고 共感할 수 있는 共通的인 情緒가 있다 그거예요.

예컨대 「아리랑」하게되면 우리겨레 누구나 들어도 마음에 와 닿는게

있습니다. 그런 意味에서 아마 體育會談에서 單一팀의 團歌로 「아리랑」을 選定한 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공통적인 情緒·感情을 基礎로 해서 公演內容을 構成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우리는 「民族的인 것」이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좀 具體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民族的인 것 속에는 民族傳統의 歌舞도 있을 수 있고 또 民族歌劇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1次 訪問團時에 우리 雙方의 公演內容物은 대체로 民族傳統歌舞에 接近되어 있는 內容이었습니다. 또 民族歌劇 우리側에서 있고 내가 알고 있는 貴側에도 一部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民族傳統의 歌舞나 民族歌劇을 中心으로 해서 「民族的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걸 相對側 地域에 가서 公演한다고 하면 아무 問題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合意한 民族인 것에 符함이 된다 이 뜻입니다.

다음 또하나 「健全한 內容」에 대해서 지금 貴側에서는 『頹廢的인 것 없애야 된다, 西歐的인 것 洋風 排除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물론 頹廢的인 것 排除해야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또하나 留意해야할게 있습니다. 理念的인 要素 排除해야 됩니다. 理念的 要素가 排除될 때 비로소 健全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겁니다.

아까 박선생이 남쪽에서 社會主義國家의 藝術團을 데려다가 公演한 것을 貴側 藝術人들이 보면서 우리도 가장 훌륭한 作品을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도 88 올림픽 때 蘇聯·東歐에 있는 社會主義 여러 나라

많이 와서 公演을 했는데 그 公演內容속에, 「맷세지」속에 政治·理念的인 要素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分明히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돌아가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公演한 作品 다 봤어요. 理念的인 要素 하나 없습니다. 主로 傳統的인 純粹古典的인 作品으로 돼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과 人間關係, 人間の 愛憎과 사랑이라든가 말이죠. 또 자기나라 傳統文化的인 것 이런 것 가지고 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觀客들이 박수를 보낸거예요.

또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당시 社會主義國家 公演團이 서울에 왔을 때에 赤十字次元에서 온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文化交流次元에서 왔어요.

이게 무엇을 意味하느냐? 文化交流次元에서 왔다. 赤十字次元이 아닌데도 不拘하고 그들이 와서 우리側을 刺戟하는 內容의 公演을 안했다 그거예요.

하물며 같은 民族끼리 더더군다나 相互理解·信賴를 위해서 赤十字次元에서 하는 公演內容物에 理念性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로서는 容納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愜意한 세 原則가운데 『相互誹謗·中傷하지 않는다』 이 대목에 대해서 지금 자꾸 貴側에서 一方的인 해석만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歪曲된 겁니다.

그때 分明히, 그때 分明히 貴側에서 이 『誹謗·中傷하지 않는다』는 表現속에는 「刺戟하지 않는다」는 內容이 包含돼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確認하고 同意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誹謗·中傷속에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대해서 나로서는 펍 理解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合意過程을 돌이켜보면 貴側이 왜 表現속에 「刺戟」을, 刺戟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빨려고 했느냐? 난 이걸 杞憂이길 바랍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貴側에서 「꽃과는 處女」를 꺼내게 되면 우리側을 刺戟할 것을 알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꽃과는 處女」를 南側 舞臺위에 무난히 올려놓기 위해서는 合意書文章에 刺戟이라고 하는 表現은 빼는게 좋겠다 하는 뜻에서 故意的으로 두 글자를 빼것이 아니었는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杞憂이길 바랍니다만.

그리고 또하나 내가 指摘할 것은 지금 貴側에서 내놓은 合意書案에 의하면 公演內容原則에서도 刺戟이라는 말 빼고 또 司會者의 公演種目 紹介에 관한 部門에서도 刺戟이라는 말 빼고있어요. 아시죠?

貴側이 내놓은 合意書案을 보면 司會者가 公演種目を 紹介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相對側을 誹謗·中傷하지 않는 原則에서 公演種目を 소개한다」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事實은 따지고 보면 一次 「訪問團」交換時 合意事項에 의하면 公演種目 紹介에 관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相對側을 誹謗·刺戟하지 않는 原則에서 公演種目を 紹介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번에 貴側은 여기 「刺戟」이라는 말을 빼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公演內容속에서도 刺戟이라는 表現을 빼고 또 司會者의 公演種目 紹介部門에서도 뺀 理由가 뭐냐 그거예요.

이건 우리로서는 相當히 注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反面에.

北(박영수) : 우리 注目해야지.

南(宋榮大) : 가만히 계세요!

反面에 貴側의 記者의 取材活動에 관해서 條頂을 새로 追加를 했습니다. 어떤 條頂인가 하면 「記者들은 相對方을 誹謗·中傷·刺戟하는 取材活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分明히 「相對方을 誹謗·中傷·刺戟하는 取材活動을 하지 않는다」 刺戟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記者들이 相對方을 誹謗·中傷·刺戟하는 報道活動하는 것 그 原則은 좋습니다 精神은 좋아요. 그러나 우리 大韓民國 社會의 特性으로 미루어 봐서 赤十字가 言論社에 대해서 報道活動을 하는데, 取材活動하는데 『이것 하라, 말라』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取材活動하는데 가급적 相互間의 理解를 增進시키는 쪽으로 報道를 해주세요』 要望은 할 수 있지만 『이러이러한 것 하지말라』 義務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貴側이 내놓은 取材活動條項을 볼 것 같으면 「刺戟」이라는 말을 넣고 있는데 問題는 이겁니다. 公演內容·公演種目 소개 部門에서는 刺戟이라는 말을 빼고 우리側 記者들의 取材活動 分野에 있어서 「刺戟」이라는 表現을 넣은 理由가 뭐냐 그거예요.

이것을 나는 이렇게 解釋을 합니다.

貴側이 서울에 와서 革命歌劇을 公演할 수 있는 길을 트고 우리側 記者들의 取材活動에 대해서는 制限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놓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杞憂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런 疑問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北(박영수) : 좋습니다.

南(李峻熙) : 잠깐, 우리 首席代表 말씀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貴側이 오늘 會談에 임하는 姿勢를 이야기 않을 수 없다하는 생각에서 몇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 이상 들을 必要도 없는 「꽃파는 處女」를 장황하게 主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이 實務接觸의 本質을 떠나서 마치 文化藝術接觸을 하고 있는 그런 印象을 주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쾌치 못하다.

冒頭에 貴側에서도 아까 박단장도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問題가 될 수 없는 이런 問題들에 대해서 雙方이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는 嚴重한 事態』라고 아까 發言을 했는데 그건 나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貴側이 새롭게 그동안 우리가 合意를 본 過程에서 革命歌劇을 提起하고 우리側에 대해서 刺戟을 주는 刺戟性向의 公演을 固執함으로써 本 實務接觸을 破綻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貴側은 이 實務接觸에서 初盤부터 우리가 1985年度에 1次의 先例도 있고 또 이게 우리가 12月8日 日字부터 本會談 날짜까지 合意를 한 狀況에서 가장 本質적이고 雙方 意見折衷이 必要했던 「訪問團」規模를 비롯한 「訪問地」問題·公演節次問題 등이 다소 時間이 遲延되긴 했지만 意見의 一致를 본 마당에서 새롭게 이런 革命歌劇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實現意志가 없다면, 없다면 솔직한 立場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것이지 事情이 있으면 있다고 하든지, 지금 가장 人間的 苦痛을 겪고 있는 人道事業에서까지 그같은 不誠實한 態度를 갖고 있다는 것은

內外로부터 또 1千萬 離散家族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 깊이 留意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南北對話의 展望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姿勢是正이 要緊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오늘날 東西和解와 冷戰體制가 終熄되는 이러한 世界的인 潮流에 副應해서 새로운 思考와 姿勢定立만이 우리民族 將來에 절대절명의 必要한 要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姿勢의 變化를 갖고 우리側 案에 接近하는 誠意가 있다면 이 점을 우리가 期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코 오늘의 接觸에서 우리가 期待할 수 없다는 事實이 自明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革命歌劇이 어찌구 저찌구」하는 이야기를 떠나서 나머지 問題에 대해서 誠實한 姿勢를 해준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妥結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솔직한 立場을 이야기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促求하는 바입니다.

南(宋榮大) : 李代表말대로 이 程度면 公演內容物에 대해서는 充分히 서로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 정도 하고 나머지 未合意 事項에 대한 討論을 좀 했으면 합니다.

北(박영수) : 峻熙先生 또 宋先生 發言들에서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그대로 듣고 있기조차 거북한 그런 表現들이 나왔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眞實로 이 上程된 問題들 또 意見差異가 있는 問題들을 妥結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면 그런 성급한 發言들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더욱이 峻熙先生은 『接觸을 破綻으로 누가 끌어간다 또 實現意志가 없다면 밝히려, 바로 밝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첫 發

言에서부터 事實上은 이말을 하고 싶었던건데 雙方會談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表現을 참은겁니다 참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 發言에 대해서 이건 적반하장이다, 말 自體로 적반하장격이다 해서 내가 明白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立場을 밝힙니다.

좀더 뒤에 붙여서 말하고 싶은거는 眞實로 또 誠心誠意로 이 두가지 人道的 事業을 年內에 成事시키려는 意志가 있다면 내가 부탁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論議하고 合意해온 이런 原則들에 符合되는 우리의 藝術公演內容과 關聯한 主張 이걸 받아 들여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原則을 다 合意해 놓고 이 마당에 와서 『이거는 어떻소 저거는 어떻소』 이런 式으로 이걸 否認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 接觸自體가 진짜로 순조롭게 될 수 없고 峻熙先生 이제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會談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 주게 된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미 合意했던 事項을 뒤집어 엮고 이런 式으로 會談을 하면 會談이 順調롭게 進行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에도 符合되지 않는다, 맞지않는다』고 宋先生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答辯을 保留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論議할 問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問題에 대해서 簡單히 말씀드리면 우리 歌劇의 內容과 性格으로 볼때 이거는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 맞는겁니다.

赤十字가 人間의 不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 基本使命인데 나는 오히려 眞實한 赤十字人들이라면 그 歌劇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분이」一家가 당하는 不幸과 苦痛에 대해서 말씀이

조.

그리고 내가 이 問題와 關聯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現實적으로 우리가 南北赤十字會談에서 自由來往問題에 대해서 合意하고 있습니다. 原則에 대해서 合意하고 있고 그와 關連한 合意書草案들을 서로 提示하고 있는 狀況입니다.

그리고 한 두차례의 本會談이면 自由來往 實現시킬 수 있다는데 대해서 우리 各自가 見解의 一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宋先生도 거듭 強調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立場에는 지금도 變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自由來往이 進行되는 경우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꽃파는 處女」만 보겠습니까? 다른 것도 더 보지요. 그쪽에서 「刺戟」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것 다 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問題가 되겠는가? 내가 赤十字 人道性의 原則· 中立性의 原則 이야기 하려면 이야기 하겠는데 이 問題에 대한 論議는 宋先生 原則에서, 宋先生 發言에서 이 內容問題에 대한 論議를 서로 意見이 開陳이 됐으니까, 자기 의견들을 充分히 發表했으니까 일단 保留하고 다음 問題 討論로 들어가자는데 내가 留意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問題討論로 넘어가 보지요 그럼.

南(宋榮大) :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는게 相互性이에요.

지금 아까 우리 李峻熙 代表가 왜 그런 말을 했느냐하면 박선생이 오늘 會談劈頭부터 『난관을 우리側에서 造成하고 있다, 嚴重한 事態다』 이런 式의 刺戟的 表現을 썼습니다. 그것 쓰셨잖아요 분명히?

北(김광수) : 宋先生이 첫 發言에서 쓴거는 생각안하십니까?

南(宋榮大) : 내가 언제 刺戟的인 發言을 썼어요?

北(김광수) : 錄音을 가서 풀어 보십시오.

南(宋榮大) : 심지어 우리 言論·放送에, 우리 言論·放送의 報道까지 꺼내 가지고 『難關을 造成하고 있다, 嚴重한 事態를 造成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會談霧圍氣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우리 李代表가 말한겁니다.

그러니까 그 問題는 그 정도로 덮어두고 일단 未合意 事項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藝術團과 關聯해서 남아 있는 것이 公演回數와 公演時間 등인데 이 問題에 관해서 이렇게 봅니다.

貴側이 「꽃파는 處女」를 公演하기 위해서 公演時間을 거기에 맞췄다 그겁니다. 그래서 3時間이 必要하다 지난번에 分明히 말씀하셨죠?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또 公演回數도 「꽃파는 處女」에 맞춰가지고 4회를 主張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 問題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 안합니다.

北(박영수) : 그것 最終的인 겁니까? 내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南(宋榮大) : 받을 수 없다는 것 分明히 이야기 합니다.

北(박영수) : 그러니까 最終的인 겁니까?

南(宋榮大) : 아 물론이죠.

北(박영수) : 變動의 여지가 없는가?

南(宋榮大) : 없지요 없죠.

자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으니가 結局 이번 藝術團交換이 實現될

려고 할 것 같으면 貴側에서 公演內容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公演內容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경우에 公演時間과 回數는 거기에 맞춰서 調整이 不可避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公演時間도 우리가 누누이 強調한대로 3회가 적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른 할말 많이 있습니다만 時間을 節約하기 위해서 그 程度만 이야기 합니다.

北(정덕기) : 좀 한번 이야기합시다. 원래 時間 또 回數問題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전번날 討論을 하다가 事實은 公演內容問題 「꽃과는 處女」 이거는 우리가 時間이 必要해서 그렇게 純眞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貴側에서는 公演內容問題와 關聯해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公演內容問題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 일전에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다른 것도 包含될 수 있다」는 것을 前提로 했고 그런 만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번에 내놓은 問題와 關聯해서 貴側에서 「꽃과는 處女」 問題와 關聯해서 舉論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이와 關聯해서 사실 互相의 이야기를 이때까지 會談에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만 제기했던 內容을 撤回할 義務가 있고 貴側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撤回하라고 要求할 그럴 것만 없을겁니다. 우리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묻질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時間이 가지만 理解를 돕기 위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누구나 다 認定할 수 있는 問題를 가지고…….

南(宋榮大) : 잠깐,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團長先生 이야기가 이제는 公演內容物에 대해서 그 程度 討

論을 끝내고 回數하고 時間問題 討論하자 이렇게 됐으니 그 部門에 맞춰서 發言했으면 좋겠어요.

北(정덕기) : 그와 關聯해서, 그와 關聯됐어요.

北(박영수) :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北(정덕기) : 왜냐? 公演時間問題는 「꽃파는 處女」를 撤回하는 條件에서 150 分이다. 貴側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꽃파는 處女」가 民族的 見地에서 맞고 또 人道的 見地에서 어떻고 그 이야기는 다 說明했습니다. 說明했는데 내 여기서 하나 貴側에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革命」이라는 말, 「階級性」이라는 말 이거 가지고 지레 神經쓰지 마십시오.

一般的으로 革命이라고 하는거는 貴側에서도 쓰고 우리도 쓰고 다른나라에서도 씁니다. 단 概念上에서는 差異가 있습니다.

아마도 貴側에서는 革命이라고 이야기 할 때 「그 어떤 制度나 體制를 전복하기 위한 暴力的인 運動 이걸 주로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 경우에는 그렇게만 通用되지 않습니다. 「人間的 自主성을 위한 鬭爭, 人間的 自主성을 위한 社會·歷史的 運動」 이걸 革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民主主義 革命이 끝나고 社會主義 革命이 끝난 오늘에 와서도 革命이야기를 합니다. 3大 技術革命…….

南(李峻熙) : 정선생님! 나 잠깐만. 왜 그러냐하면 아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자꾸 하지말고 時間節約해서 이야기하라고요.

北(정덕기) : 좀 이야기합시다. 그렇게하고 階級性에 관한 것도 이야기했습

니다. 惡德地主와 地主一般이 아닙니다. 惡德地主와 머슴과의 關係 이건 貴側에서도 그런 事實이 있는거고 또 이 公演을 본 世界 수 많은 사람들도 다 여기서 뭘 보는가?

貴側에서도 이야기한 人道主義精神이 具現되어 있습니다. 서로 돕고 이끄는 또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崇高한 人정심리 여기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 그거 보고 同情합니다.

그런데 貴側에서는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왔던 한 美國의 政治家도 이걸 보고서 『表現的 價値가 있는거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런 矛盾은 있다. 應當하다』 이런 式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 民族인 貴側에서만 이것을 그다지 否定視 하는가? 나는 이와 關聯해서 한마디 해야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겁니다.

왜그런가? 아직 우리가 開放도 하고 民族共同體도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對決觀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런 見地에서 貴側이 생각하고 또 先入觀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觀念을 가지고 時間問題·回數問題 이렇게 해도 進展이 잘 안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刺戟問題와 關聯해서 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도 貴側의 對決觀念과 關聯해서 미리 생각한 겁니다.

刺戟問題 아까 우리 團長도 이야기 했지만 그건 너무나도 包括範圍가 넓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러고 誹謗·中傷이라는 그말에 刺戟이라는 思想이 들어가 있습니다.

誹謗·中傷하지 않는다 하면 北南關係에서는 그것이 곧 刺戟입니다.

그것이 곧 刺戟. 그런데 이제 그러한 問題를 걸고 우리가 遲延戰術한다 遲延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貴側에서 眞正으로 今年內에 이 두가지 事業을 할 意思가 있다면 「꽃파는 處女」問題 이거 가지고 지레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또 北과 南사이에 和解와 團합을 圖謀하고 信義를 圖謀할 그런 意思가 있다면 우리의 公演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回數問題도, 時間問題도 이런걸 前提로 해서 우리는 討論할 걸 主張합니다.

南(李峻熙) : 정선생! 모른다는게 아니라 자꾸 내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정선생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貴側이 왜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理由를 알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抗日問題」라든가 「抗日遊擊」·「革命」 좋다 이겁니다. 그것 우리도 아까 張吉山 問題 나왔지만 우리 小說에도 文學에 다 있어요. 그것을 否定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된다 이거예요 아직은. 그걸 알면서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北(정덕기) : 그 다음 部分이라니?

南(李峻熙) : 가서 봐요 가서.

南(宋榮大) : 그 다음 部分 이야기 꺼내면 서로 立場이 거북해요.

南(李峻熙) : 내가 이야기 안하려고 그러는데.

北(정덕기) : 왜 그다음 部分을 問題視하는가 이겁니다. 그건 對決觀念이

아닌가?

南(李峻熙): 그게 어떻게 對決觀念 이야기예요?

北(박영수): 우리 會談整理를 하자고요. 會談場 整理를 하자고요. 옥신각신 하지 말자고요.

南(宋榮大): 그러니까 公演內容物은 그만 이야기하자 그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北(박영수): 글썽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아까 宋先生 이야기를 했어요, 公演回數·時間問題. 그런데 宋先生 이제 提議自體가 이게 아주 一方的이에요.

南(宋榮大): 合理的이죠.

北(박영수): 「꽃파는 處女」를 바꾸면 뭐 150分이면 되겠으니까 回數도 3회는 되겠으니까 適當할거다 이렇게, 이게 뭐인가 하면 그걸 前提로 하는거예요.

前提로 하면 안됩니다.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왜 그쪽의 意思를 考慮해서 公演時間을 2~3時間으로 하자고 했느냐? 우리가 그때 그것을 明白히 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저는 이게 公演內容問題 討議로 다시 돌아가는 印象도 있지마는 내 그쪽에서 北의 資料를 다 開放하지 않았어요? 나 그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로동신문」이 「피바다」歌劇臺本들 다 南朝鮮에서 지금 出版되어서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公開, 北의 情報公開 北의 資料公開 특히 「로동신문」 다 公開했는데 19살 以上の, 19살이든가 뭐 住民登錄證 가진 사람은 다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方針이 이미 떨어졌고 그게 施行된다는 資料도 많이 보

고 있는데 이미 南朝鮮에 다 나갔는데 이것이 읽혀지고 있고 그런데  
뭐 이제와서 이걸 問題視를 자꾸 하면서 이걸 자꾸 바꾸라고 하니까  
바꾸는 것을 前提로 하다나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納得이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公演內容問題 이걸 조금 뒤두는 것 좋습니다. 덮어놓고  
時間·回數 우리 案대로 합시다. 그저 그대로 하면 돼요. 아니 그런데 이  
거 異狀하구만? 둘 내지 세時間 이거 왜 못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저 反問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쪽  
에서 公演時間을 150分으로 딱 制限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歌劇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기위한 意圖에서 150分으로 定한 거구만요?

南(宋榮大) : 우리가 150分, 처음에 120分을 提議했다가.

北(박영수) : 그건 이미 우리가 同意해 주었던건데.

南(宋榮大) : 30分 늘여서 150分으로 했는데 그 理由는 이래요. 우리가  
처음에 120分에서 150分 그 基準을 定하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事項을  
考慮했습니다.

첫째는 우리側에서 一般的으로 하고있는 公演時間을 생각한 것입니다. 우  
리는 보통 2時間 程度예요.

北(박영수) : 그것은 考慮할 必要없어요.

南(宋榮大) : 가만 계세요!

北(박영수) : 우리 公演, 우리가 交換하는 公演인데 自己側 立場을 생각했다  
고 하면 되나요. 그걸?

南(宋榮大) : 가만 계세요! 2時間 程度했고. 왜냐하면 우리側 藝術人들  
의 意見이 作品을 構成하는데 있어서 두 時間 程度가 가장 完璧한 作

品構成의 時間이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點을 考慮했고.

또 하나는 國際的인 慣例를 充分히 참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國際的으로 有名한 藝術團 公演時間이 보통 두 時間 前後입니다. 다 두時間 前後예요.

그리고 지금 이 公演時間과 關聯해서 우리가 120分에서 150分으로 늘일 수 있다하고 한번 讓步를 했습니다. 한번 꺾었어요. 그러면 貴側에서도 여기에 相應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時間에서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게 妥協의 姿勢인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5分도 지금 調整을 안했습니다 貴側에서.

또 이 公演回數問題도 그래요. 처음에 2회에서 3회로 1회 더 늘여 주겠다 讓步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貴側에서도 뭔가 誠意있는 態度表示가 있어야죠.

結局 이 公演回數·公演時間 이것이 貴側 立場에서는 「꽃파는 處女」라고 하는 作品을 하기 위해서는 4회로 해야 되겠다, 3時間 해야 되겠다 하는 立場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意見を 좁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꽃파는 處女」라고 하는 이 大前提에 대한 雙方見解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고서는 回數·時間 아무리 討論해봐도 意見接近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北(박영수) : 가만, 내가 하나 물어본 다음에 이제 우리 광수대표 얘기하겠는데 150分 이상 늘이지 못한다는 그런 理由는 무엇입니까?

南(宋榮大) : 아니 거기에서는 꼭 그러면 3時間해야 된다는 理由가 뭐예요?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歌劇作品을 하나 가지고 나가려면 3時間 程度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3時間이다. 그래 3時間이라고 정하지 말고 그쪽의 意見이 120分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럼 2時間, 3時間 그 어간에서 各其 便利한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主張 符合되는 거지요? 各其 便利한대로 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굳이 딱 3時間 程度라는 말은 못받겠다고 하는 理由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그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歌劇을 꼭 가지고 나가겠다는 그걸 못나오게 못가지고 나오도록 하기위한 그런 그 무슨 「턱」이란 말이에요.

南(宋榮大) : 아니죠. 이 얘기죠.

北(박영수) : 가만 잠깐, 우리 저 가만 簡單히 저 …….

南(宋榮大) : 우리側에서 보통 慣例的으로 公演時間을 두時間 前後로 한다. 國際的인 慣例도 그렇다 그거예요.

北(박영수) : 좋습니다 그 問題는 그 問題는. 지금은 우리 藝術團을 交換하는 問題를 討論합니다. 그쪽 藝術團을 基準으로 해서 할 수는 없어요 時間·回數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서로 交換하는데 時間은 우리 便利한대로 그쪽에서 便利한대로 해야되요.

南(宋榮大) : 박선생! 한가지 물어봅시다.

北(박영수) : 그쪽에서 딱 두時間 程度 한다고해서 그것을 北과 南에 藝術團을 交換하는데다가 適用을 하자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完全히 갖다 붙일 그게 안되죠.

南(宋榮大) : 그러니까 우리가 問題解決하는데 여기에서 公演時間問題는 그것은 附隨的인 것이예요.

北(박영수) : 그래 가만, 가만 그저.

南(宋榮大) : 지금 重要한 걸림돌이 뭐야? 公演內容物이예요. 이것이 먼저 解決이 되어야지 이게 解決되면 公演時間·回數는 自然的으로 다 이것 풀립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重要한 걸림돌을 除去를 하지않고 公演時間 이것 討論해봐야 개미 쳇바퀴 돌듯이 항상 原點에서 맴돌아요.

北(김광수) : 宋先生! 내가 한마디 합시다. 本來 우리 內容問題를 얘기하는 것은 時間 우리가 왜 두時間 내지 세時間으로 公演時間을 定하자고 하는 우리 趣旨를 貴側에 이야기해 줌으로써 提起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趣旨가 歌劇 「꽃파는 處女」를 우리 가지고 나갈려고 한다 그러니까 貴側에서는 『못받겠다』 이렇게 됨으로써 公演內容問題는 3日前에 種目を 通報해 주기로된 여기하고는 맞지않게 된 것 같습니다. 不得已하게 우리 實務代表接觸에서 內容討論이 되어야 다른 問題들이 妥結되지 않겠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討論하자고 한대로 實務節次問題에 대한 討論을 그냥 합시다 하고 그러면서도 內容討論이 竝進되어서 같이 討論되어야 이것이 妥結되지 않으면 妥結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꽃파는 處女」를 꼭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內容討論하려면 貴側에서도 뭘 가지고 들어오겠는가? 貴側에서도 不得已 이 問題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놓고 같이 이것 合意되어 妥結이 되면 時間問題라든가 團長問題라든가 이여의 問題들이 다 合意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關聯해서 내 몇가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

에 다시한번 強調해 이야기 確認하면 이미 「꽃과는 處女」는 우리 人道主義精神이나 人道主義活動에 赤十字人道主義活動에 맞는 作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南朝鮮에 이 作品을 가지고 갈려고 選定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內容에 대해 내가 簡單히 說明해 올리기로 하면 이 歌劇 「꽃과는 處女」에는 日帝統治時期에 惡德地主가 …….

南(李柄雄) : 內容은 다 알아요.

南(李峻熙) : 다 알고 있어요.

北(김광수) : 아, 이야기 할 때는 들으시오, 들으시오! 남이 이야기하는 것 꺾지 마세요. 왜 人道主義에 맞는가 하는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貴側이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 이야기 하는 것이죠.

南(李峻熙) : 內容을 다 아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北(김광수) : 이야기 들으시오! 내 얘기 끝난 다음에 이야기 하세요. 非人間的인 蠻行을 暴露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人權蹂躪行爲를 暴露했습니다.

南(李峻熙) : 아 그것 다 좋다 이거예요. 人道的이고 뭐 人權蹂躪行爲를 暴露한 것이고 다 좋다 그거예요.

北(김광수) : 人權蹂躪行爲를 暴露하는 것은 아까 宋先生이 이것 赤十字人道主義精神에 이 歌劇이 맞지 않는다. 徹底히 맞는다. 그겁니다 나는. 人權蹂躪行爲를 赤十字活動의 基本으로 되고 있습니다.

人權에 대한 問題는 우리 人道主義精神에서 基本으로 치고 있습니다. 또 赤十字活動이 人權을 옹호하는 것을 基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作品을 赤十字가 選定하는데 適合한 作品이라  
그말입니다.

다른 하나의 側面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作品은 離散家族問題가  
여기 包含되어 있습니다. 本意 아니게 主人公 家族들이 갈라졌다가 다시  
相逢하는 이런 場面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친  
척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이런 事業에 符合되는 作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第1次 本會談때 貴側 首席代表로 우리側에 왔던  
李範錫 首席代表는 映畫 「꽃파는 處女」를 보고 그걸 鑑賞하고난 다음  
에 自己問題와 結付시켜서 自己 누이에 대한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北  
에 내 누이가 있는데 찾아달라. 이런 提起까지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 歌劇이 離散家族들의 心情에 맞기 때문에 李範錫 首席代表도 이런  
걸 提起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 作品을 우리 南朝鮮에 가지고 나가면 離  
散家族들의 相逢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을 주면 주었지 나쁠 것이 없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作品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理解할 수 없  
습니다. 또 이 作品의 하나가 여기에선 救濟事業도 여기 있습니다.

柄雄先生도 알겠지만 여기에서는 藥房主人이 「꽃분이」에게 자기 어머  
니 病救援을 하라고 藥을 주는 場面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赤十字가  
해야될 活動입니다. 이거 내용상으로 놓고 볼적에 赤十字 活動에 맞는다  
는 것입니다.

이런 側面에서 나 이 問題를 하나 설명해 올리고, 그렇게 하고 合意  
事項에 符合된다는 問題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團長同志가 설명 했습니  
다.

이 問題에 대해서 反復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더 添附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合意事項에 잘 符合된다는 것입니다.

이 作品이 符合된다는 것은 우리 雙方會談하는 過程에 제일 좋은 作品을 상대방에 가지고 가자는데 대해서는 見解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꽃파는 處女」는 우리 北半部에서 제일 좋은 作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요전번에도 얘길 했지만 千回公演이 끝났습니다.

南(宋榮大) : 우리 簡單 簡單히 합시다.

北(김광수) : 그래서 얘기하시요. 宋先生이 길게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하니까 자르는 理由가 뭐니까? 發言權이야 좀 自由롭게 가지고 討論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南(宋榮大) : 간단간단히 해요.

北(김광수) : 千回公演이 끝났습니다. 이 作品은 우리 아세아에도 많이 나가 巡回公演이 됐고 구라파에도 많이 나가 巡回公演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 많은 나라 指導者들 특히 資本主義나라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社會主義 나라 指導者들도 그렇고 이 作品에 대한 좋은 評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世界 最高峯의 藝術이라는 이런 評價도 있었고 一等級의 藝術이란 이런 評價도 있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藝術이란 이런 좋은 評價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좋은 作品이기 때문에 우리가 南朝鮮에 가지고 나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作品에 대해서 日本 「큐슈」大學의 「미즈나미·아끼라」라는 이런 教授는 이런 講演까지 했습니다.

『朝鮮藝術이 世界 最高峯이란 것은 다들 여지없이 萬民이 인정하는 一致한 의견일 것입니다. 나는 朝鮮의 歌劇 「꽃과는 處女」를 가장 崇高하고도 激動的인 흥분속에서 보았습니다.』

「꽃과는 處女」가 바로 이러한 作品이기 때문에 우리가 南朝鮮에 가고 나가려고 합니다.

南(宋榮大) : 좋습니다.

北(김광수) : 이런 좋은 作品을 우리는 南朝鮮에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貴側이 받지 못하겠다 하니까 이 內容討論이 돼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난 받지 못할 理由가 없다고 봅니다.

北(박영수) : 저 宋先生!

南(宋榮大) : 질문했죠. 나한테?

北(박영수) : 아니, 질문이 아니라 그건 질문이 아니고 그 內容討論은 좀 일단 保留하자고 그랬으니까 그럼 또 公演回數·時間問題는 이 內容하고 關係된 것이니까 이것도 좀 미루고, 이것도 미루고 「訪問團 團長問題. 故鄉訪問團 對象問題. 여기 넘어 갑시다. 記者取材活動·報道活動問題까지 아까 宋先生이 얘기했는데 그 問題까지 包含해서 이 問題에 대한 討議를 좀.

南(宋榮大) : 그럼 이야기 합시다. 아까 박선생이 첫 發言에서 이 訪問對象者에 대한 우리側의 立場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問題에 관한 우리側 意見을 다시 整理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側이 第1次 接觸부터 第5次 接觸까지 訪問對象者問題를 어떻게 提起를 했느냐 하면 「南과 北에 故鄉을 둔 사람으로 構成하자」하고 提起했습니다.

이것은 離散家族들의 意思에 符合이 되고 또 이번 第2次 「訪問團」 事業 趣旨로 보아서 매우 正當한 제의입니다.

그런데 지난 6次 接觸 때에 우리 雙方間에 規模問題가 合意點에 따라서 우리側에서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 規模問題를 비롯해서 訪問地 問題라든가 實況中繼問題 등 기본문제가 다 妥結됐으니까 時間의 促迫性을 考慮해서 여타의 附隨的인 問題는 先例를 準用해서 一括妥結합시다. 하고 提案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 6次接觸 때 規模問題 妥結된 直後에 우리側에 뭐라고 했느냐? 『이제 나머지 問題는 時間이 없으니까 先例를 準用해서 一括妥結 합시다』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貴側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公演團과 관련해서 公演的 內容·回數·時間 등에 관해서는 先例를 좀 바꾸어야 되겠다 해서 새로운 提案들을 많이 내왔습니다.

그런 條件속에서 우리로서는 그 公演內容·回數·時間 先例로 했으면 妥結이 쉽게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貴側에서 『이건 좀 바뀌야 되겠다』하고 자꾸 問題를 提起하고 그 問題로 因해서 討論의 場이 벌어지고 하는 狀況속에서 그렇다면 우리側에서도 訪問對象者問題 先例로 한다는 立場을 좀 再考해야 되겠다.

왜? 지금 離散家族들이 訪問對象地나 對象者를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側 離散家族의 境遇에 平壤에 고향을 둔 사람이 아닌 餘他地域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고향도 못가는데 이 訪問對象者마저 平壤에 고향을 둔 사람 위주로 制限을 하게 되면 이것은 均衡이 안맞는다』 이말이에요.

이런 離散家族들의 要求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考慮  
를 했어요. 考慮를 해가지고 이 公演回數나 內容 이런 것을 先例에서  
좀 바꾸는 그런 마당에 이와 같이 離散家族들이 熱望하는 對象者 選定  
問題에 있어서도 그들 要求를 좀 考慮를 해서 그럼 「南과 北에 故  
鄉을 둔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修正  
提議를 내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訪問對象者 問題에 대한 修正提議  
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이 貴側의 先例變更 態度에 原因이 있다는 겁니  
다. 이 點을 分明히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걸 그렇습니다. 우리가 折衷을 해야되니까 우리는 南과 北에  
故鄉을 둔 사람 하면 좋겠다, 貴側에서는 서울·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  
爲主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러면 合意書가  
지금 別個 合意書 아납니까?

그러니까 貴側 合意書案에는 서울·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 爲主로 表  
記를 하고 우리 合意書에는 南과 北에 故鄉을 둔 사람으로 構成한다  
이렇게 表記해서 상대방이 그걸 確認만 해주면 되는 것 아납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만약 그것이 接受가 안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表現自體를 다 빼자  
그거예요. 빼가지고 訪問對象者 明示하는 것을 削除를 하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은  
南側은 350, 北側은 300名으로 한다」이런 式으로 될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 어려움 없이 雙方間에 쉽게 合意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北(김광수) :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宋先生한테. 요전번에 宋先生이 訪問 對象者 問題와 關係해서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當事者들 爲主로 한 다는데 同意한 事實을 確認합니까?

南(宋榮大) : 아니 그게 내가 그때 同意하기를 …….

北(박영수) : 그 問題에 대한 가만 宋先生님!

南(宋榮大) : 내가 대답할게요.

北(박영수) : 아니 대답은 내가 말씀 드릴게요. 그 問題 包含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包含해서 내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 다음에 좀 말씀하십시오. 그 質問에 대한 對答은 지금 당장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訪問對象者 問題와 關係해서 지금 宋先生 죽 말씀을 하는데 이게 좀 事理에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우리가 平壤과 서울에 둔, 故鄉을 平壤과 서울에 둔 當事者들을 爲主한 한다 이건데 뭐 先例, 先例가운데는 不合理的건 고쳐야 되죠. 그걸 우리가 否定하는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하자고 하나 하면 이 問題를 놓고 말하면 이거 그쪽의 意思를 고려한 것입니다.

무엇을 考慮했는가 하면 訪問地를 故鄉까지 가는걸로 하자 이 主張했잖았어요 그쪽에서?

우리는 바로 그쪽 意思도 이번에 實現시켜 주자는 겁니다. 大凡한 姿勢지요. 우리가 故鄉을 平壤과 서울에 둔 사람들을 爲主로 하면 故鄉에 가는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 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둘째로 이 餘他, 平壤과 서울 以外에

다른데 故郷을 둔 사람들도 가고 싶어 하니까 이것도 考慮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宋先生?

우리가 우선 그 問題와 關聯해서 두가지 問題로 답변을 드리겠는데 하나는 다른데 故郷에 둔 사람들을 우리가 排除하지 않는다는 것, 「爲主」로 했기 때문에 平壤과 서울에 故郷을 둔 사람들을 爲主로 했기 때문에 다른데 故郷을 둔 사람들을 우리가 排除하지 않는다는 것.

둘째로 이번 「訪問團」交換事業이 이것이 自由來往이 아닙니다. 또 그저 「訪問團」交換 이렇게만 말해도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事業은 象徴的인 事業으로 進行하기로 合意한 事項, 合意했습니다. 그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를 다 들어 주자면 300名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그쪽에서 千萬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오겠다고 하지요. 지금 300名 가지고 그 사람들 要求를 들어줄 수 있어요? 못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는 事業은 어디까지나 象徴的인 事業이고 그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를 다 들어주는 길이 바로 自由來往입니다. 우리는 그 自由來往을 하자는 것이고 그 立場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 그래서 本會談을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要求라는거 이거를 우리가 가려 들어야 됩니다. 지금 段階에서는 다 들어 줄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象徴的으로 進行하는 事業에서 그 사람들이 다 要求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사람들의 要求를 들어주지도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해도.

그럴 바에는 故郷까지 가도록 해주자는 그쪽의 意思를 考慮하고, 考慮해서 平壤과 서울에 故郷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는 것이 正當하

겠다. 그것이 우리의 主張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이것이 重要的 問題입니다. 내 이제 김광수代表가 이야기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問題입니다. 會談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저 代表들도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代表들이라고 해서 이말 했다 저말 했다 해도 안되지만.

더욱이 代表團의 團長과 首席代表라고 하면 자기 發言에 대해서 責任을 질줄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이 한번 發言을 해 놓으면 그것이 최종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訪問對象問題와 관련해서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는데 대해서 명백히 合意를 했습니다. 이건 合意事項으로 누르고 다음 問題로 넘어 갑시다 했던 問題예요.

그런데 한時間도 못돼서 이걸 바꾸자는 理由가 지금 妥當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뭐 妥當하지 않다는 건 앞에서 說明한 걸로 내가 거 얘기를 代替합니다.

그래서 빨리 「訪問團」 團長問題에 대해서는 宋先生이 아직 그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意見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訪問對象問題 이걸 그저 우리 案대로 確認을 합시다. 본래 合意했던대로 그저 合意하면.

南(宋榮大): 가만, 가만 있어 봐요! 지금 이 訪問對象者問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重要的 基本問題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訪問對象者를 選定하는데 있어서 꼭 考慮해야 될 것이 離散家族들의 意思尊重입니다.

70年代初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合意한 여러가지 內容 가운데 하나가

離散家族들의 의사를 尊重한다 이거예요. 잘 아실거예요.

北(박영수) : 아 뭐 尊重해야 됩니다.

南(宋榮大) : 우리가 70年代初에 「民主原則·自主原則·7.4 聲明精神·人道主義原則에 따라서 離散家族 問題를 해결한다」 合意했지요?

北(박영수) : 아 그건 뭐 再論, 다시 말하지 않아도 돼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離散家族들의 意思를 존중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무엇을 지금 要求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특히 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들이 아닌 餘他地域에 故鄉을 둔 사람들은 이 40餘年만에 이루어지는 이 「訪問團」事業을 통해서 누구나 다 故鄉을 가기를 願합니다. 그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貴側 案대로 할 것 같은면 「訪問團」 構成에 있어서 이 서울에 故鄉을 둔 사람을 한 50% 이상 지난번에 했지요?

같은 原理로 우리가 故鄉訪問團 構成에 있어서 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은 50% 이상을 包含시킨다고 할 경우에 나머지 40% 정도 가지고 餘他地域 사람들이 包含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離散家族들의 要求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지금 그 世界情勢가 몇 拾萬·몇 百萬이 왔다 갔다하는 狀況속에서 말이지요. 어떻게 平壤에 故鄉을 둔 사람 爲主로만 보내느냐 이겁니다.

이런 點에서 우리 離散家族들이 地域·訪問地 制限하는 것 이것도 不當할 뿐만 아니라 對象者 選定하는데 있어서도 制限두는 것 不當하다 이걸 없애 달라 하는 要求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박선생이 뭐 相對側 代表團의 責任問題 云云하

는데 나 이것 상당히 내가不快하게 생각합니다.

會談에서 一方이 修正提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이 「訪問團」 對象者 選定問題에 대한發言을 變更한 것은 그 原因이 貴側에 있습니다.

지난번 接觸 때 規模問題를 위시해서 基本問題에 대한 合意가 다 된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 『餘他問題 時間 아끼기 爲해서 先例대로 합시다』하고 주장했어요.

그때 貴側에서 公演內容·回數·時間 등등 해가지고 全部 先例와 달리 해야된다 해가지고 問題提起를 했습니다.

離散家族의 悲願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公演內容·回數問題에 관해서 先例를 바꾸는 마당에 離散家族들의 悲願에 얽혀 있는 對象者 問題 못바꿀 理由가 됩니까? 應當 바꾸어야지요. 原因이 貴側이 先例準用方式을 따랐으면 내가 이런 問題 提起안했다 그거예요.

北(박영수) : 그 責任도 우리한테 돌아오누만.

南(宋榮大) :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便利하게 합시다. 편리하게 해요. 그러면 아무 事業하는데 支障없습니다.

北(박영수) : 좋습니다. 한가지 물어 봅시다. 先例 바꾼다 바꿀 수 있습니다. 不合理的 先例야 고쳐야지요. 전번에 그런 의미에서 不合理的 先例·前例 고치자. 그건 뭐 正當한 우리 意見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고친다고 하는데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걸 否認하는 건 아니예요. 내 아까 명백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宋先生이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보건데는 뭘 잘못 생각하는가 하면 離散家族들의 要求라는 것, 우리가 「訪問團」交

換을 통해서 離散家族問題 다 해결해 주는 것 같은 印象이 들어요. 우리는 그 問題는 本會談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本會談에서 自由來往에 대한 最終合意가 이루어지기 前에 그들에게 血肉들과의 相逢에 대한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기 위해서 「訪問團」 交換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象徵的인 事業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앞서나가지 마십시오. 이걸 뭐 本會談에서 充分히 解決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말하는 1千萬이라고 하는 그런 흠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를 다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本 實務代表接觸에서 論議하는 「訪問團」은 그런 性格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내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둘째로 先例를 고칠 수는 있는데 전번에 合意했던것을 왜 다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實務接觸에서 團長과 首席代表사이에 合意를 했었지요?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 合意를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 前에 修正案을 내든지 해야지 그 꼭 바뀌야 될 理由가 무엇입니까? 合意를 했던 事實까지.

南(宋榮大): 내가 同意하게 된 것은 餘他的 절차문제도 先例대로 하자는 우리側 주장에 貴側이 同意해 올것을 알고서 對象者問題를 내가 論議한 거예요.

北(박영수): 宋先生! 이거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우리 이미 提案를 나왔을 때 先例가운데서 고칠 것들을 고쳐놓은 部門이 많은데 그건 不合理하기 때문에 合理的이 되도록 하자고 提案을 내놓은 狀態인데 우

리가 그걸 다 前例대로 하는데 同意할 것을 前提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가 宋先生한테 그런 말을 하면 宋先生이 接受를 하겠어요? 『나 우리 案대로 당신네가 다 同意할 줄 알고 네가 이렇게 했었는데 안하니까 난 또 다시 바꾼다』 이렇게 말하면 宋先生 이건 會談者의 立場에서 이것 接受되겠어요?

南(宋榮大): 조금 前에 박선생이 重要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北(박영수): 그 問題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십시오.

南(宋榮大): 관련된 問題예요. 지금 이번 「訪問團」事業이 象徴的 事業 내지 示範事業이라고 할 경우에.

北(박영수): 示範事業은 아니예요 그것은.

南(宋榮大):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象徴事業이든 示範事業이든間에 가능한 離散家族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많이 줄 수 있는 方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한다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하나 아까 박선생이 本會談 한 두번만 하면 다 妥結되어 自由來往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問題와 관련해서 한가지 強調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實務接觸을 갖게된 것이 두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第11次 赤十字 本會談을 平壤에서 개최하는 問題 또 하나는 第2次 「訪問團」 交換事業問題 이 두가지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接觸過程을 통해서 오늘까지 이 「訪問團」問題는 어느정도 討論이 많이 되었습니다. 成果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本會談에 관해서 말하면 날짜에 관해서만 15日로 合意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5日날 平壤가기 위해서 準備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11次 會談의 準備를 貴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초청측 立場에서 11次 會談 準備狀況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北(박영수) :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本會談 問題討議 넘어가자는 겁니까?

南(宋榮大) :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그 第2次 「訪問團」 事業關係는 討論이 많이 됐고 合意도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未合意 事項이 이제 명백히 들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눌러놓고 또하나 남은 우리의 과제가 本會談 關係 아납니까? 本會談으로 말하면 「第11次 會談은 15日날 平壤에서 開催한다」고 분명히 合意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측인 貴側에서 지금 어느 정도 準備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다 갈 準備가 되어 있습니다. 이 點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準備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北(김광수) : 討論하다가 또 다른 이런 問題로 方向을 돌리는 겁니까?

北(박영수) : 幕間애긴가?

南(宋榮大) : 이걸 박선생이 이 問題 이야기하다 本會談問題 꺼냈어요. 『本會談 두번 정도 하면 다 끝난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北(박영수) : 나는 本會談 問題를 그쪽에서 「訪問團」 交換의 性格問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離散家族 全體의 苦痛을 解消하는 問題는 本會談 所管이라고 말한 것 뿐이고. 그래서 本會談

問題를 討議하자고 이렇게 問題를 選定할 必要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南(宋榮大) : 질문을 했으니가 대답을 주시고.

北(박영수) : 대답을 하지요. 우리는 本 實務代表 接觸이 2가지라고 명백히 宋先生도 얘기했고 그것 事實이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合意하고 있느냐 하려는 本會談의 氛圍氣를 위해서 「訪問團」交換을 先行시키기로 한데 대해서 合意를 하고 있습니다.

「訪問團」交換을 本會談 앞에 先行시키는데 合意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事實을 考慮하면서 「訪問團」交換問題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合意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 나는 어쨌든 「訪問團」交換問題를 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런 意味에서 한가지 명백히 할건 하고 좀 提案을 하나 내겠는데 公演內容問題와 관련해서 서로 立場에 再考의 餘地가 없다는데 명백해졌지요 지금?

南(宋榮大) : 本會談關係에 대해 다 對答을 했습니까?

北(박영수) : 다 對答을 했습니다.

南(宋榮大) :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그다음 얘기하세요. 지금 박선생이 「訪問團」事業을 本會談에 先行시키기로 合意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貴側에서 잘못 이해한 겁니다.

北(김광수) : 또 뒤집는구만? 야 이거.

南(宋榮大) : 보세요! 아니 會議錄 보세요!

北(김광수) : 訪問地問題 그레 또 이거 뒤집고 宋先生 이렇게 하면 會談을 못합니다.

南(宋榮大) : 가만히 계세요! 내 지금 이야기 途中이니까 들어보시라고요.

北(박영수) : 말씀하십시오. 宋先生님! 말씀하십시오.

北(김광수) : 또 뒤집고, 規模問題 다 다시 討論합시다 그럼. 아이구 이거  
하자는 立場인지.

南(宋榮大) : 너무 흥분하지 말고 좀 들어 보세요!

北(박영수) : 말씀하십시오 말씀.

南(宋榮大) : 우리가 지난 3次 接觸 때에 11次 會談날짜에 관해서 合意  
를 했습니다. 그때 그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當初 우리側에서는  
『11次 會談을 12月 19日날 했으면 좋겠다』 하고 提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선생이 『그 問題는 초청측의 意思를 尊重해야 한다』고  
하면서 15日을 내놓았어요.

北(박영수) : 그 前에 썩 前에 우리가 15日을 내놨습니다.

南(宋榮大) :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우리側에서 『중소 그러면 第2次  
「訪問團」날짜를 12月 8日로 하고 11次 會談날짜를 貴側이 提議하는데  
로 12月 15日로 하는것 받겠소』하고 同意를 했습니다.

北(박영수) : 그렇지.

南(宋榮大) : 그렇지요?

北(박영수) : 그럼요. 그건 明白합니다.

南(宋榮大) :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確認을 하기를 『日字問題를 合意를  
보았습니다』 이때 박선생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8日부터 「訪問團」  
을 交換하고 그다음에 15日에 本會談을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問題없다  
면 일없다. 그렇기 때문에 15日로 동의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北(박영수) : 예.

南(宋榮大) : 그리고 또 이어서 『日字問題는 이제 合意되었습니다』 여기 日字問題 合意 다 됐다는 뜻에는 本會談과 第2次 「訪問團」 事業날짜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때 김광수 선생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本會談 날짜하고 ……』

北(박영수) : 아 그게 무엇 때문에 必要해요?

南(宋榮大) : 가만 계세요! 『「訪問團」期間을 연관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 本會談하고 이 「訪問團」 하고는 分離되어야 된다는 것을 強하게 암시한 겁니다.

여기서 내 하나 結論 삼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本會談하고 第2次 「訪問團」 날짜하고는 分離해서 合意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15日날이 며칠 안남았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가 第2次 「訪問團」 事業에 관련된 未合意 事項을 서둘러서 타결을 해야되지만 한편으로는 11次 會談開催도 우리가 準備하는데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 제기한 겁니다.

北(박영수) : 예. 그 상당히 한달 前 일을, 會談錄을 들추어서 發言文들을 이제 적어 가지고 왔는데.

北(김광수) : 억지로 結付시키느라고 苦生 많이 했겠습니다.

北(박영수) : 저 그 問題는 명백히 할건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이제 宋先生 얘기한 그 對話 가운데도 무엇이 명백히 밝혀져 있는가 하면 『「訪問團」交換을 한 다음에 本會談을 한다』 그것이 明白히 돼 있습니다.

南(宋榮大) :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合意에 어디에 있습니까?

北(박영수) : 거 저 이제 읽는데, 그거 읽는데 「訪問團」交換을 해가지고 날짜問題 일없겠는가? 「訪問團」交換을 한 다음에 그렇게 바로 本會談을 해도 일없겠는가? 그쪽에서 질문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南(宋榮大) : 그런데 그것은.

北(박영수) : 그리고 가만, 조금 있어요! 그리고 宋先生이 지금까지 오늘 接觸에 와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쪽에서 宋先生이 양보한 것이 몇가지다 하면서 첫째로 時期問題다. 時期問題가 뭐이냐? 「訪問團」交換을 本會談에 앞세운다는데 대해서 合意를 한건 자기네가 양보를 한 거다 이거 아닙니까?

北(김광수) :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北(박영수) : 12月8日이 12月15日 前에 있다는 거야 뭘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南(宋榮大) : 우리가 19日날 제의했는데 貴側이 15日날로 받은 것 아닙니까?

北(박영수) : 그리고 가만 가만, 내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 내가 이거 저 나도 資料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 하나 引用을 하지요. 3次 接觸 때 그 이제 3次 接觸이지요?

南(宋榮大) : 그렇지요.

北(박영수) : 우리側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날짜問題는 이 정도 의견일치가 되어 가니까 아무래도 이번 本會談 날짜問題·「訪問團」交換 날짜問題 그리고 「訪問團」交換과 關聯한 다른 이여의 合意書를 채택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지요?』하고 물으니까 그쪽에서 『예』 그랬습니다. 또 4次 接觸에 와서 그쪽에서 宋先生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細部

의인 問題를 하나 하나 討議할 것이 아니라 一括討議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좋습니다』.

南(宋榮大) : 細部的인 問題는, 細部的인 問題는 本會談과 關聯된 것이 아니라 「訪問團」과 關聯된 세부적인 問題예요.

北(박영수) : 하나 하나 討議할 것이 아니라 一括討議 합시다. 그래서 내가.

南(宋榮大) : 그건 「訪問團」과 關聯된 세부적인 問題 一括討議하자 그래요.

北(박영수) : 아니 「訪問團」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도 一括討議하고 우리 合意한 原則에 따라 어느 하나만 合意되었다고 해서 요거는 實踐에 옮기고 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上程된 問題들에 대한 一括合意가 돼야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宋先生 대답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北(김광수) : 그래 宋先生! 내 저 한가지 물어 봅시다.

南(宋榮大) : 한쪽만 지금 뽑았는데 그게 아니예요.

北(김광수) : 아니 아니, 宋先生! 내 한가지 물어봅시다.

南(宋榮大) : 이봐요! 내가 그때 이야기 한 것은 「訪問團」과 關聯된 절차문제 이걸 一括討議 合意하자 이것에 同意한거예요.

北(박영수) : 그럼 내 하나 물어 봅시다. 그 물어 보는 趣旨가 뭐니까? 「訪問團」交換問題 지금 討論 끝나지 않았는데, 더욱이 지금 뒤의 實務問題·內容問題는 그만 하고라도 「訪問團」團長問題 論議도 못해 봤어요.

南(宋榮大) : 그건 지난번에 論議했잖아요 ?

北(박영수) : 그런데 아니 오늘 會談에서, 오늘 接觸에서.

南(宋榮大) : 내 오늘 첫 發言에 얘기했잖아요 ?

北(박영수) : 論議도 못했는데 그 問題를 물어보는 趣旨가 뭐니까 ?

南(宋榮大) : 아니 아까.

北(박영수) : 한번 明白히 좀 얘기해 주시오.

南(宋榮大) : 내 분명히 얘기할게요. 아까 박선생이 이야기 하다가 途中에 本會談 問題를 꺼냈잖아요 ?

北(박영수) : 本會談 問題를 얘기했기 때문에 ? 좋습니다. 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가 이제 했다 그말이요.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 그 本會談 問題를 論議한 것은 그쪽에서 離散家族들의 고통을 幅넓게 덜어주는 問題는 本會談 소관이다. 그러니까.

南(宋榮大) : 그러니까 幅넓게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本會談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 서두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準備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초청측인 貴側의 準備事項 차질 없겠느냐 ?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北(김광수) : 내 하나 내가 물어봅시다. 宋先生한테. 지금 우리가 급한건 12月8日에 2次 藝術團 및 故鄉訪問團을 交換하는 問題 이것이 15日에 해야될 本會談 再開問題보다 더 急한 問題입니다.

南(宋榮大) : 물론이지요.

北(김광수) : 그런데 뭣때문에 宋先生은 15日 問題를 正面에 내세웁니까 ? 그럼 2次 「訪問團」交換事業을 미루자는 뜻입니까 ?

南(宋榮大) : 천만의 말씀.

北(김광수) : 급한걸 먼저 해결해야 되겠는데 뭣 때문에 15日 問題를 그렇게 앞에 내세웁니까?

南(宋榮大) : 천만의 말씀. 아니 우리는.

北(김광수) : 「訪問團」交換問題 實務問題 빨리 討論합시다. 뭣 때문에 15日 問題를 먼저 내세웁니까? 그거 充分히 얘기 하십시오.

南(宋榮大) : 우리는 第2次 「訪問團」 기필코 성사시키는 立場에 추호도 변함없어요.

北(김광수) : 그러니까 問題 빨리 討論합시다 그 問題를.

南(宋榮大) : 우리가 지금 討論을 해왔는데 討論 中間에 貴側 團長이 本會談 問題를 꺼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北(정덕기) : 그 問題는 이제 그만끔 하고.

北(박영수) : 그러니까 답변이 됐잖아요? 내가 本會談을 꺼낸 그 말은 그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그 때문이었다니까 답변이 됐지요?

南(宋榮大) : 아 그건 됐는데 그건 됐어요 됐고. 한가지 여기서 더 確認할게 있는데.

北(박영수) : 뭘니까 또?

南(宋榮大) : 그러니까 貴側 立場은 이 「訪問團」問題가 本會談에 꼭 先行이 돼야된다는 말이죠 바꿔 말하면?

北(김광수) : 그야 合意된 問題를 또다시 얘기합니까?

南(宋榮大) : 「訪問團」事業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本會談도 못하겠따하

는 그뜻입니까?

北(박영수) : 그러니까 이 원래 質問의 質問에는 대답을 하지 않는게 좋은데 本會談 禮儀上 그런데 내가 不可避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만요. 그건 宋先生 質問自體가 나로 하여금 이제 對答을 다음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을 내 前提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訪問團」交換 이것 해야될건데 그걸 『만일 어떻게 되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本會談도 못한다는거냐?』 이제 그 質問이 아십니까 結局은?

南(宋榮大) : 아니, 貴側이 지금 우리 合意事項과는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訪問團」이 本會談에 先行이 된다는데 대해서 合意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合意한 적이 없거든요?

北(박영수) : 그러면 12月8日是 뭐입니까? 15日 本會談이요?

南(宋榮大) : 그러니까 15日날 本會談이에요.

北(박영수) : 8日은 뭐니까?

北(김광수) : 8日 讓步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北(박영수) : 그러니까 時期問題 讓步했다는 것은 뭐입니까?

南(宋榮大) : 우리가 19日날 提起한 것, 貴側에서 15日날 主張했잖아요?

北(박영수) : 아이고 宋先生!

北(김광수) : 「訪問團」交換事業을 먼저 하는데 讓步했다는, 原則問題에서 讓步했다는 宋先生의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北(박영수) : 宋先生! 말씀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지않아요?

北(김광수) : 그렇게 뒤집으면 우리 會談 못합니다 이거.

南(宋榮大) : 우리가 事實은 本會談을 말이지 제일 처음에 11月1日날 하

려고 그랬는데 그後에 12月19日날로 讓步했고 그 다음에 15日날로 讓步했어요. 그러니까 몇번을 讓步한 겁니까?

北(박영수) : 아니. 좋습니다. 그저 뭐 그런것 가지고 더 이야기 하지를 맏시다.

北(정덕기) : 거 會談 마지막까지에 와서 참 별나게 發展이 되는데.

北(박영수) : 이제 宋先生 말씀하는거는 내 理解되지 않아요. 理解될 수 없어요. 「訪問團」時期, 그 時期問題 讓步했다고 하는 것을 12月19日에 提起했던 것을 15日로 讓步해줬다 이뜻이 아니잖아요 原來는?

南(宋榮大) : 우리는 두번 꺾었어요. 하여튼 두번 꺾었어요.

北(박영수) : 지금까지 말한게 時期問題에서 그쪽이 讓步했다는게 19日을 15日로 讓步했다는 뜻이 아니었잖아요?

南(宋榮大) : 11月1日에서 12月19日로 또 12月15日로 이렇게 讓步한거죠.

北(박영수) : 됐습니다. 그런것 저 뭐 그런건 그렇고.

南(宋榮大) : 아까 저 團長問題 얘기했죠?

北(박영수) : 지금 제일 「訪問團」交換問題, 가만 있어라 뭐 宋先生이 團長問題 이야기를 하려면 더 이야기를 하고?

南(宋榮大) : 예, 합시다.

北(박영수) : 그 우린 그저 副總裁로 하자는 것인데 그쪽에서 各其 便利한대로 하자니까 그건 또 그 問題도 역시 지금 立場의 變化가 없잖아요? 變化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問題도 그럼 일단 討論된 걸로 합시다.

南(宋榮大) : 그럼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北(박영수) : 그래서 내가 提案을 하나 하겠습니다.

南(宋榮大) : 예.

北(박영수) :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이게 흠어진 거래 앞에 또 온 민족앞에 「訪問團」交換을 12月8日에 第11次 本會談을 12月15日에 한다고 지금 宣布를 해놓은 狀態란 말입니다.

그래 이것 어떻게 하나 成事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거 成事시키자고 하니까 지금 難關이 뭐인가 하면 意見이 좁혀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뭐 이렇게 公式會談으로 딱 마주앉아서 하다나니까 더 그런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 이거 問題解決의 突破口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거 「訪問團」交換을 成事시키자는 立場에서 내 다음과 같은 案을 하나 내지요.

「訪問團」交換問題에 관한 意見差異를 時急히 좁히고 豫定된 날짜에 「訪問團」을 交換하기 위해서 意見差異를 좁히는 作業을 代表 個別接觸에 넘겨서 討議하면 어떻습니까?

이건 뭐 그 形式은 代表들 만나서 하기로 하고 可能的 限 서로 負擔이 없이, 서로 負擔이 없이 이 「訪問團」交換問題 討議를 빨리 結束하기 위한 이런 緊急措置로써 代表 個別接觸을 進行하는 것이 어떤가?

南(宋榮大) : 한가지 좀 물어보겠는데 代表 個別接觸이라고 할 경우에 前에 두분이 했던 그런 것을 意味하는 것입니까?

北(박영수) : 예, 그걸 念頭에 둡니다. 그래서 뭐 이거 저 格式을 차리지 말고 한번 단돌이서 만나서 한번쯤 그 우리 權限을 좁시다. 宋先生도 權限을 다 首席代表의 權限을 주고, 나도 團長의 權限을 우리 代表

에게 주어서 서로 이렇게 公式性을 좀 띠지 않게 진지하게 妥結策을 좀 모색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나 이것 成事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南(宋榮大) : 아 成事시킨다고 하는 그 點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立場인데 지난번에 두분 手筈을 많이 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가 滿足할만한 成果를 生産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果然 이러한 狀況속에서 代表 個別接觸을 해보야 어떤 새로운 突破口가 열리겠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疑問을 갖습니다. 疑問을 가져요.

結局 이게 다시 原點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번 「訪問團」事業과 關聯해서 가장 重要的 남은 問題는 貴側의 公演內容物 問題입니다. 이것 하나만 妥結되면 나머지 問題는 쉽게 解決할 수 있어요.

그래서 公演內容物 이 問題에 관해서 貴側이 지금 바꿀 수 없다 하는 立場을 繼續 지금 表明하고 있는데 이런 狀況속에서 果然 두분 만나가지고 滿足할만한 合意가 生産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나로서는 조금 疑問이 갑니다.

北(김광수) : 그럼 宋先生 妥結方途를 좀 내놔 보십시오. 어떻게 妥結하겠는가?

北(박영수) : 지금 問題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訪問團」交換問題를 가지고 지금 雙方 見解差異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좁혀지지 않는데 지금 問題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代表 個別接觸을 하자는 것은 原來 아무 會談이나 幕後接觸이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해온 또 우리 前例도 있는 것이고 비록 거기에서는 『滿足할만한 結實이 없었다』 이제 宋

先生 이야기를 하는데 그 問題와 關聯해서는 雙方 사이에 그 무언가 이제 좀 誤解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저 어제 消息을 들었는데 그쪽 中央日報에서 代表 個別接觸 事實이 報道되었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내가 그 資料를 確認中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리이러한 몇가지 저 서로 잘 和음이 되지 못한 이런 側面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앉아서 繼續 마주앉아 있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종일 앉아 있어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問題 妥結策은 代表 個別接觸에 넘겨서 거기서 한번 좀더 雙方이 妥協點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 代表 個別接觸은 來日이라도 좋습니다. 뭐 거 便利한대로.

南(李峻熙) : 아니 지금 時間이 없는데, 時間이 없잖아요 지금? 딱 열흘 남겨놓고 지금 代表接觸이니 뭐니 지금 妥結點이라는 것이야 지금 바로 여기에서 서로 이렇게 意見을 接近하면 바로 될 것 같은데 아까 冒頭에서 얘기했지만 아무 問題도 안될 것 가지고 자꾸 이것 時間을 끈다면 代表接觸이 무슨 成果가 있겠어요?

北(김광수) : 그러면 그 妥結方途를 貴側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北(박영수) :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는 妥結策을 하나 내놓았어요.

南(宋榮大) : 아니 그런데 박선생 생각으로 代表 個別接觸을 가질 경우에 貴側이 지금 내놓고 있는 그 公演內容物에 대해서 融通性을 發揮할 수 있다고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그 點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北(박영수) : 宋先生!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雙方接觸인데 그러니까 그걸 뭐 前提條件으로 붙여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바꾸어서 물어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趣旨를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한 번 만나서 진지하게 協議를 해보라. 우리 그렇게 委任을 줍시다, 委任을 줍시다.

北(정덕기) : 貴側에서 準備하고 있는 公演內容物도 좀 듣고.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妥結해야 되겠다고 하는 立場에 대해서는 우리도 同感인데 그동안에 두분 여러차례 만났음에도 不拘하고 아무런 成果가 없었다 그거예요.

北(박영수) : 여러차례 그거야 뭐 몇차례입니까? 네차례요?

南(宋榮大) : 그리고 지금 分명한게 지금 딱 爭點은 이제 하나로 좁혀졌어요. 그래서 貴側의 公演內容物 問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融通性이 없는한 果然 代表接觸을 해봐야 效果가 있겠는가?

北(박영수) : 차꾸 또 뭐 미리부터 안된다고 생각할거야 없잖아요?

南(李峻熙) : 그러니까 우리가 意見을 좁힐 수 있는 融通性을 서로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事實은 그게 제일 重要해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그쪽에서 앞으로 이 接觸을 繼續하는 경우에 그럼 融通性을 보일 수 있는가? 이렇게 내가 물어보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式의 質問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代表接觸에 넘겨서 한번 해보자.

지금처럼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서 가만히 마주앉아 있어야 무슨 解決策이 나오지 못할게 뻔한데.

南(李峻熙) : 그럼 두분이 만나보지 그러면?

北(박영수) : 團長 個別接觸? 그렇게 하갑니까?

南(李峻熙) : 아니, 제가 지금 또 물어보는 거예요.

北(정덕기) : 融通性은 아무래도 서로 보여야 되겠으니까 그쪽에서도 融通性을 보여야 될것 아네요?

北(박영수) : 峻熙代表는 포기하는 것 같구만. 峻熙代表는 벌써 포기하는 것 같애.

南(李峻熙) : 광수선생이 이야기를 잘 안들어서 (一同웃음)

北(김광수) : 峻熙先生이 좋은案 내놨으면야.

南(李柄雄) : 公演問題에 있어서 內容에 서로가 現實的인 問題를 理解를 해야 될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刺戟을 안하도록 努力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쪽에 刺戟으로 된다고 그러면, 刺戟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서 檢討를 해야될 것이고 나는 오늘 當然히 檢討가 되어서 나온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變動이 없으니까 事實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가 더 進展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뭐 『團長先生끼리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뭐 그랬으니까 團長先生끼리 두분이 이야기 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北(정덕기) : 아 우리도 오늘 나올 때에는 貴側에서 뭐 좀 研究를 해서 合意를 하는 方向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 뭐 딱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던 말이에요.

南(李柄雄) : 한번 얘기한 것을 자꾸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고.

北(박영수) : 아무래도 解釋을 달리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南(宋榮大) : 代表 個別接觸은 나는 否定的입니다. 이것은 否定的이고 貴側에서 지난번에 團長 個別接觸을 提起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도 貴側이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側으로서 應할 用意는 있습니다.

北(박영수) : 난 전번에, 이거 참 지금 무슨 方式인가 하면 술래잡기 같아요.

南(李峻熙) : 왜요?

北(김광수) : 숨바꼭질 …….

北(박영수) : 여기 있는가 해서 따라가면 또 저쪽에 가있고 거기에 가있는가 하면 여기 또 그자리에 와있고 그래서 그저 같은 場所를 뱅뱅돌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전번에는 또 團長 個別接觸은 뭐 거기에서 『안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또 團長 個別接觸 提起해야 안될테니까 『代表들끼리 個別接觸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案을 提起를 했는데 또 …….

南(李柄雄) : 내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는 다 이제 그쪽에서 우리 立場을 아니까 充分히 檢討가 되어서 修正이 될줄을 알았는데 전혀 變動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뭐.

北(박영수) : 개구리 같아요, 개구리. 개구리가 다 따라가면 …….

그래 나는 原來 代表 個別接觸을 提起했던 趣旨는 代表들이 實權을 받아서, 團長들의 實權을 모든 委任을 받아서 討論한 다음에 그 結果를 이 實務接觸을 다시 열고 거기에서 合意事項으로 늘려야 된다. 團長이 參加하는 實務代表接觸에서 누르는 方法 이게 合理的이겠다.

그런 意味에서 代表 個別接觸을 提起를 했었는데 또 代表 個別接觸을 提起한 趣旨는 지난번에 우리가 提起를 했는데 그쪽에서 또 否定的이었

으니까 그때는 내가 그런 提起를 한 趣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妥結지어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때 否定的 이었고 그래서 오늘 했었는데 어떻게 代表 個別接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實務代表接觸을 열고 거기에서 討議된 事項을 決定하는 方法이 어드래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南(宋榮大) : 이런 問題가 있어요. 이제 밖에 報道와 關聯될 問題인데 이 團長 個別接觸에 만약 우리가 合意를 하게 되면 그것은 일단 報道陣에게 알리는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側의 離散家族들이나 겨레들이…….

北(김광수) : (우리側 「메모」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同意하라는 連絡이 온것 같구만.

北(정덕기) : 아니 代表 個別接觸이야 이미 뭐 合意한건데 뭐 그대로 그저 하시죠.

南(李柄雄) : 時間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8日인데 이게 時間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解決지어져야지 또 實務接觸 했다가 다시 늦어지는 경우에는…….

南(宋榮大) : 團長 個別接觸의 경우에는 밖의 記者들한테 알려주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代表 個別接觸을 하게 되면 前에 본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秘密接觸의 性格을 띠기 때문에 記者들한테<sup>24</sup>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밖에서 볼 때는 오늘 우리 接觸을 끝으로 해가지고 마치 「訪問團」事業이 안되는 것처럼 誤解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團長 個別接觸에 우리가 만약 合意를 하고 이것을 갖다가 記者들에게 알

려주게 되면 역시 『두 團長間에 무엇을 繼續하는가 보다』하는 어떤 希望을 가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點에서 方式은 代表 個別接觸보다는 團長 個別接觸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내가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이제 딱 問題 하나 남았습니다. 貴側의 公演內容物입니다.

그래서 公演內容物에 관해서 박선생이 조금 伸縮性을 賦與할 수 있다는 그런 立場같으면 내가 午後에라도 둘이 만나겠습니다. 그런데 없으면 우리 둘이 만나봐야 똑같은 이야기만 되풀이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北(박영수) : 그런 前提條件을 繼續 붙이자는 겁니까?

南(宋榮大) : 아니 前提條件이 아니라.

北(박영수) : 그거야 지금 雙方 사이에 意見差異가 있으니까 그것을 좁혀 보자 그런 意味에서 지금 이런 對策이 提起되는데 그리고…….

南(李峻熙) : 그 意見差異를 좁히는 것은.

北(박영수) : 그리고 거 峻熙先生! 무슨 問題가 있는가 하면 團長 個別接觸하는 경우에는 記者들에서 公開로 하고 지금과 같이 記者들에게 다 알리고 하자는 겁니까?

南(宋榮大) : 그래야지요.

北(박영수) : 代表 個別接觸은 그렇게 안하고?

南(宋榮大) : 그렇지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과 같이, 지금 宋先生 말씀하는 뜻은 各其 두사람씩 나오지 않았다 뿐이지 지금과 같은 形式이로구만?

그 뜻입니까?

南(宋榮大) :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北(박영수) : 그래도 그건 內的인 討議를 可能하게 해야지요.

南(宋榮大) : 그렇게 할 경우에 各各 記錄은 한 사람씩만 데리고서 만날 수는 있죠.

北(박영수) : 글썽 그러니까 그 自體를 秘密에 부치고?

南(宋榮大) : 물론 그 團長 個別接觸의 內容은 秘密에 부치되 그와 같은 接觸을 갖는다 라고 하는 事實에 대해서는 記者들한테 알려는 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죠.

北(박영수) : 아 그렇다면 하나 確認할 것은 記者들이 이렇게 團長 個別接觸을 하는 날짜에 記者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南(宋榮大) : 그것은 여기까지 들어와서 取材할 必要는 없겠고 다만 밖에서 찍는 것이야 뭐 할 수 없겠죠?

北(박영수) : 이 밖에까지는 다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의 公開로구만? 지금과 같은 形式이로구만?

그런 式으로 하겠는가? 아니면 전번 代表 個別接觸 처럼 일체 記者들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뭐 단둘이 허심하게 論議할 수 있는 場所로 하겠는가? 그 問題가 좀 있을 것 같구만?

南(宋榮大) :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지난번에 두분 하듯이 똑같은 方式으로 하는데 사람만 바꾸어서 우리 둘이 만나자 그뜻 아닙니까?

北(박영수) : 아 아, 아! 그러면 .

南(宋榮大) : 아니 그 뜻이죠? 지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北(박영수) : 그렇죠.

南(宋榮大) : 예. 그런데 그 方式은 어쨌든간에 重要한 것은 內容이 問

題조.

南(李峻熙) : 內容이 問題지요.

北(박영수) : 아 그러니까 內容의 問題는 자꾸 닫히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좁혀 보자고 方途를 지금 모색한게 아닙니까?

北(김광수) : 內容은 討論해 봐야…….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만 合意해 주세요. 우리가 그 內容物에 관해서 무엇인가 좀 變化가 있을 것으로 期待를 해도 좋은지?

北(박영수) : 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南(李峻熙) : 그러니까 지금 뭐나하면 이제 이 內容은 事實은 우리가 非公開 會議를 하지만 大體的으로 나가서 記者會見에서 다 밝히는 狀況으로 주욱 해왔기 때문에 事實은 거의 뭐 半公開 會談이나 뭐 別 差異가 없죠 實質的으로는?

北(박영수) : 예 그렇죠.

南(李峻熙) : 그래서 이제 우리가 幕後接觸을 했지마는 지금 幕後接觸하는 問題는 뭐 지금 내가 얘기하는 問題는 그것은 報道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事實上 지금 이 問題가 雙方의 意見이 지금 팽팽히 맞서있는 이 公演內容問題에 대해서 뭐 우리 박선생 쪽에서도 다소 融通性을 갖는다는 希望的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가 되면 幕後接觸을 이 首席代表·團長間에 뭐 해도 되겠지만 그것이 展望이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많은 時間을 討議를 했는데 또 그 자리에서 그 問題를 또 討議하고 意見이 接近이 안된다 結果가 똑같이 된다면 그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꼭 前提條件이라고 그것을 그렇게 어떤 平行線上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지지 말고 진짜 이 內容이 秘密接觸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類推해놓고 내 얘기는 그 問題에 대해서 融通性을 가질 수 있다고만 하면 뭐 두분이 해도 얼마나 좋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러니까 그때가서 이야기 하자는 얘기 보다는…….

北(박영수) : 아니 그러니까 그럼 내가 峻熙先生한테 하나 좀 물어보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 狀態에서 繼續 마주앉아 있는 것 보다는 나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秘密接觸에 넘겨서 좀더 이야기 할 수 있는 機會를 또 意見差異를 接近시킬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해보자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처럼 繼續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렇게 方途를 물어보고 싶구만요.

南(宋榮大) : 이렇게 합시다. 우리 團長 個別接觸을 하든 우리 6명이 이렇게 앉아서 實務接觸을 하든간에 重要的 지금 이 「걸림돌」이것을 푸는 것이 先決問題이기 때문에 그 問題가 먼저 解決이 先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오늘 돌아가셔서 貴側의 公演內容物을 再檢討 하십시오. 다시 좀 研究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한테 언제라도 直通電話로 連絡을 주면 團長 個別接觸도 좋고 우리 6명이 만나는 것도 좋고 우리가 即刻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北(박영수) : 내가 그럼 提案 하나 낼까요?

北(김광수) : 無理한 要求를 하신단 말이요.

北(박영수) : 그럼 내가 提案 하나 낼까요? 公演內容問題에 있어 우리側의 案을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直通電話로도 좋고 連

絡代表部를 통해서도 좋고 連絡하면 團長 個別接觸이든 代表 個別接觸이  
든 이 지금 8次接觸이든 아무 때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宋先生 어떻게 對答하겠습니까?

問題를 解決하고자 하는 그 態度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지  
금 우리가 「訪問團」交換問題와 關聯해서 膠着狀態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한 그 어떤 解決策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 이 「訪問團」成事시키려는 立場이라고 난 보  
여지는데요.

그 打開策이라는게 뭐이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좀더 規模  
를 좁히고 허심하게 이야기 해보도록 하는 機會를 가지자 이게 우리 趣  
旨인데 그런데 그쪽에서 그것을 자꾸 마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참 理解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南(李峻熙) : 아 우리가 여지껏 허심하게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여기에서  
못할게 뭐있어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峻熙先生! 그 前에 있잖아요, 그 前에 그 代表接  
觸할 때에도 좀더 허심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代表接觸을 갖자고 한번  
提起했던 當事者が 이제와서 또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하니까. 아 참  
내 그거 모르겠어.

南(宋榮大) : 다 알다시피 지금 解決의 關鍵이 지금 接觸의 方式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든 또 우리 둘이 만나든 接觸의  
方式에 差異가 있는 것은 아베요. 問題는 基本立場에 變化가 올 수 있  
느냐 없느냐 이것 아니겠어요?

北(박영수) : 그 基本立場을, 基本立場을 더 허심하게 小範圍에서 論議해보

도록 하자 하는것이 우리의 提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打開策을 내놓았습니다.

이 膠着狀態에 빠진 우리 實務代表接觸을 이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한 그 解決策을 우리가 提示를 했습니다. 그것은 흔히 會談들에서 있는 方式입니다.

北(김광수) : 會談에서 無理한 要求는 하지말고 妥結策을 내놓으시요.

北(박영수) :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問題에 대해서 그쪽에서 좀 檢討를 해보십시오.

南(宋榮大) : 아니 打開策이라고 할 경우에 그 方式이 있고 打開의 內容이 있어요. 물론 方式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할 수 있어요 이것 저것 다른 方式으로. 그런데 問題는 內容의 變化가 뒤따라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貴側 意見 들어보니까 內容에는 조금도 變化가 없을 것으로 나는 지금 印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狀況속에서 다른 方法으로 만나봐야 果然 進展이 있겠는가?

北(박영수) : 이것 보십시오. 이 接觸을 하고 나가서 다 公開하죠 지금? 內容은 다 서로 記者會見을 통해서 公開하는데 代表 個別接觸이나 團長 個別接觸이나 進行하면 그 內容은 秘密에 부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意味에서 그 안에서의 討議는 좀더 自由롭게 進行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希望을 가집니다. 그쪽 立場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希望을 가집니다.

南(宋榮大) : 그러면 이런 問題가 생겨요, 박선생말대로 한다면. 지금 끝나고 나가서 記者들한테 次期接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北(박영수) : 公開로 합시다 그러니까, 次期接觸에 대해서 지금 意見差異가 있기 때문에 代表 個別接觸이든지 團長 個別接觸이든지 여기에서 繼續 討議를 時急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되 그 날짜와 場所는 公開하지 맙시다. 그런 式으로 하면 되겠는데?

北(정덕기) : 아니 貴側에서 이걸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問題겠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이제 우리가 問題妥結을 하려면 現狀態에서 貴側도 지금 딱 요지부동이고 우리는 딱 이렇게 해야되니까 거기에 뭐 좀 妥結하려면 方式을 研究해야 되지 않아요? 內容問題에서 지금 差異가 있는데?

南(宋榮大) : 그러니까 立場과 內容·姿勢變化가 先行되어야 돼요.

北(박영수) : 그렇지.

南(宋榮大) : 그것 없이는.

北(정덕기) : 同時에 따라야 됩니다. 同時에 同時에.

北(박영수) :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姿勢變化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期待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提起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趣旨를 아마 잘 理解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膠着狀態에 빠졌죠 이 實務代表接觸이?

그러면 이 打開策이 뭐인가? 지금 둘이 各其 거의 半公式인데 結局은 이게 半公式 會談인데 여기에서는 서로 自己立場을 딱 固執해서 우리는 이걸 不變이다, 그쪽에서는 또 最終的이다 하다 나니까 그러면 繼續 마주 앉아서 보고있지요 뭐?

南(宋榮大) : 아니 그러니까.

北(박영수) : 그쪽에서 무슨 打開策이 있어요? 打開策을 내놓으라 그말이

예요. 우리는 내놓았습니다.

南(李柄雄): 問題는 打開策도 지금 여러가지 나왔는데 가장 重要한 것은 이게 相對方을 刺戟하는 本質的인 問題라 이거예요.

北(박영수): 아니 아니.

南(李柄雄):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問題는 우리가 남의 집에 어디 잠깐 들르러 가더라도 相對方에서 「그런 것은 좀 꺼리다」하는 것은 本來 삼가하는 것이 우리 禮儀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問題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解決이 되겠습니까?

北(박영수): 우리가 얘기를 다시 한번 整理합시다. 내가 저 代表個別接觸 또는 團長 個別接觸, 나 團長 個別接觸 그것도 뭐 反對없습니다 그것 同意합니다. 그쪽에서 團長 個別接觸하자면 同意합니다. 거기에 내 正式으로 同意하는데 問題는 이 우리 立場을 서로 다 알았습니다.

서로 다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서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한번 좀해보는 努力을 해야되겠다. 우리가 거저 물러설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이것 解決이 안된다고 해서 「訪問團」交換事業 豫定된 날짜에 못한다 이렇게 性急히 물러설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對策이 뭐이겠느냐? 지금 狀態로 앉아서는 얼굴만 보고 같은 말만 繼續하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다면 規模를 좀혀서 단 둘이 만나서 한번 意見差異를 좀해보도록 하자.

이것이 解決策이 됩니다. 그것을 否認할 수야 없겠죠? 그래 그런 意味에서 提起한 겁니다 宋先生! 團長 個別接觸 그것 합시다. 나 뭐 우리

가 전번에 提起했던 것이니까. 團長 個別接觸 速記하나 데리고 앉아서 한번 진지하게 論議해봅시다.

北(김광수) : 또 그것도 反對합니까?

南(李峻熙) : 내용이 問題라니까.

南(李柄雄) : 시간이 없잖아요?

北(김광수)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最大限으로 解決해야죠.

北(정덕기) : 아니 個別接觸 가지면 서로 妥結點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요?

南(李柄雄) : 貴側이 가서 研究를 해와야지요.

北(정덕기) : 그래야지 뭐.

北(김광수) : 아 研究하지 않고 會談에 나오니까 柄雄先生?

南(李柄雄) : 하는 것 그것 會談節次上的 問題잖아요?

北(정덕기) : 繼續 이 狀態로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南(李柄雄) : 節次上的 問題는 簡單하다 이런 얘기에요.

北(박영수) :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宋先生이 내놓았던 案인데 다음 接觸은 뭐 團長 個別接觸이든지 代表 個別接觸이든지 뭐 이 實務代表接觸이든지 서로 連絡을 해서 가지기로 했다.

서로 立場을 充分히 알았으니까, 서로 立場을 充分히 알았으니까 서로 立場上 差異를 좁히기 위해서 努力하기로 하고 連絡을 통해서 다음 接觸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南(宋榮大) : 예, 그것 좋습니다. 그러니까 雙方은 未合意 事項에 대한 意見差異를 좁히기 위해서 次後 個別接觸이든 團長接觸이든 6 명이 앉는 接觸이든간에 電話를 통해서 連絡을 해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 좋습니다.

니다.

北(박영수) : 그럼 그렇게 합시다.

南(宋榮大) : 좀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서 連絡주세요.

北(박영수) : 내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  
는 것인데 나는 그 簡單히 될 줄 알았는데…….

北(정덕기) : 좋은 消息 좀 기다리겠습니다.

南(李峻熙) : 정말로 아무런 問題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意見을 못 좁히  
는구만.

北(박영수) : 자, 우리 일어섭시다.

南(宋榮大) : 예, 手苦하셨습니다.

北(김광수) : 研究해서 좀 連絡해 주시구래. 宋先生! 連絡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北(정덕기) : 좋은 消息 좀 보내주십시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

---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



## 〈 우리側 代表團 記者會見 〉

- \* 日時 : 1989. 11. 27 (月) 13:36 ~ 14:12
- \* 場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平和의집」
- \* 發表 및 答辯 : 宋榮大 首席代表

### 1. 記者會見文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接觸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오늘 接觸은 午前 10 時에 시작해서 午後 1 時까지 3 時間동안 進行이 되었습니다.

우리側은 오늘 接觸이 事實上 故鄉訪問團의 年內實現與否를 평가름하는 最終會談이라고 하는 點을 考慮해서 지난 6 次接觸時에 北側이 藝術團 公演物로 「꽃피는 處女」·「피바다」등 革命歌劇을 들고나와 難關을 造成한데 대해서 遺憾을 表示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側은 이 革命歌劇의 不當性을 指摘을 하면서 이것을 撤回하여 다른 것으로 바꾸고 公演回數·時間·團長問題 등에 대한 異見을 調整해서 우리側의 合意書案을 中心으로 文案作成에 들어갈 것을 促求를 하였습니다.

우리側은 北側의 革命歌劇公演에 대해서 네가지 問題點을 指摘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革命歌劇이 赤十字의 基本原則에 正面으로 違背된다고 하는 事實을 指摘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같이 赤十字의 原則이 몇가지 있는데 그 中에 「中立性의 原則」이 있습니다. 이 「中立性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赤十字가 어떤 政治的·思想的 論爭에 介入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原則입니다. 卽 政治性 排除의 原則입니다.

따라서 北韓의 革命歌劇公演은 赤十字가 基本原則으로 삼고있는 이 「政治性 排除의 原則」에 違背된다 하는 點을 指摘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北側의 革命歌劇公演은 지난 6次接觸 때에 雙方이 合意한 公演內容原則에 違背된다 하는 點을 또한 指摘을 했습니다.

지난번 雙方이 合意한 公演內容原則은 첫째는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 둘째는 「健全한 內容으로 한다」, 셋째는 「相互誹謗·中傷하지 않는다」 이 세가지 公演原則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北側이 하고자 하는 이 革命歌劇은 이 公演原則 특히 「相對方を 誹謗·中傷하지 않는다」하는 原則에 違背된다 하는 것을 指摘을 했습니다. 그때 이 「相對方を 誹謗·中傷하지 않는다」하는데 合意를 할 때 거기 但書を 하나 붙였습니다.

어떤 但書인가 하면 「誹謗·中傷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속에는 「相對方を 刺戟하지 않는다」하는 意味가 包含되어 있다 하는 但書を 붙였어요. 相對方を 刺戟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點에 雙方이 確認을 하고 그때 이 公演原則에 合意를 한 겁니다.

그런데 雙方이 지난번에 合意한 「刺戟하지 않는다」하는 原則에서 볼 때 北側의 革命歌劇은 合意精神에 違背된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 우리側은 北側의 革命歌劇公演이 藝術團 交換趣旨에 어긋난다 하는 點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藝術團 交換의 目的은 크게 보아서 離散家族 故鄉訪問團의 交換雰圍氣를 좋게 해주고 또 相互間에 信賴와 理解를 增進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北側이 하고자 하는 그런 式의 革命歌劇은 離散家族相逢에 찬물을 끼얹고 또 相互間에 不信을 가져온다는 點을 指摘을 했습니다.

다음에 네번째 우리側은 北側의 革命歌劇公演이 南北關係改善에도 나쁜 影響을 줄수 있다는 點을 說明을 했습니다.

以上과 같은 네가지 問題點을 우리는 指摘을 하면서 北側이 革命歌劇公演 立場을 撤回하고 다른 公演物을 準備할 것을 促求했습니다. 그러나 北側은 이 革命歌劇을 갖다가 公演하겠다 하는 立場을 繼續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公演回數 또 時間・「訪問團」團長・「訪問團」對象選定問題에 있어서 그들의 既存立場을 固守를 했습니다. 특히 北側은 오늘 接觸의 冒頭에서 우리側 新聞・放送의 論評 등을 口實삼아 가지고서 우리側이 그러니까 『南側이 嚴重한 事態를 造成하고 있다』는 등 시비까지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가장 重要한 公演內容物 특히 北側의 公演內容物에 관해서 意見이 對立됨으로 因해 가지고 이것을 일단 뒤로 미루고 公演時間・回數, 團長問題 등에 討論을 繼續했습니다만 아무런 妥結點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側은 第2次 「訪問團」妥結이 遲延되고 있는 狀況에서 本會談 開催問題에 관해서 雙方間에 이미 合意한 12月15日에 平壤에서 第11次 會談을 豫定대로 開催할 것을 強調했습니다. 그러나 北側은 여기에 대해서 反對立場을 表했습니다.

次期接觸問題와 關聯해서 우리는 北側이 다른 公演物을 準備해서 直通電話로 接觸日字를 우리側에게 通報해오면 그 形式이 首席代表 個別接觸이든 代表 個別接觸이든 또는 지금과 같은 實務代表接觸이든간에 拘碍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들과 다시 만날 用意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以上이 오늘 接觸의 結果가 되겠습니다.

質問이 있으면 해주시죠.

## 2. 質疑·應答

質問：한가지 좀 여쭙보겠습니다. 12月8日에 앞서 暫定的으로 合意한 바 있었던 故鄉訪問團 交換은 이제는 不可能합니까?

答辯：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의 成敗與否는 北側이 提起한 革命歌劇을 갖다가 撤回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北側 사람이 돌아가서 이 革命歌劇公演立場을 바꾸어서 다른 公演物을 가지고 할 수 있다하고 생각할 때 우리側에 連絡을 하라고 했습니다. 連絡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놓고 볼 경우에 北韓側이 革命歌劇公演立場을 바꾸지 않는다면 12月8日 故鄉訪問團 實現은 事實上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質問이 있으면 해주시죠.

質問：次期接觸을 말이지 日程의 限度를 박지 않고 이렇게 저쪽이 立場을 바꾸면 連絡해라 한 것은 事實上 決裂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날짜를 안박은 理由가 됩니까?

다음 會談을 繼續해서 자꾸 開陳하고 討論을 해서 意見差異를 좁히는 게 아니고 既存立場을 서로 確認했으니가 어디까지나 立場이 바뀌면 그 때부터 만나자고 한 理由는 어디 있습니까?

答辯：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같이 이제 뭐 未合意 事項이 몇가지 있기는 하지만 가장 核心的인 것은 北側의 公演物內容으로 壓縮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北側이 公演物 內容物에 관한 基本立場을 바꾸지 않는 狀況에서 오늘처럼 實務代表接觸으로 앞으로 두번 세번 만나봐야 結果는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돌아가서 立場의 變化·姿勢의 變化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姿勢의 變化가 있으면 언제라도 連絡을 해라 그러면 우리 만난다. 그 方式은 뭐 여섯사람이 만나도 좋고 首席代表間에 만나도 좋고 그것은 우리 拘碍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公演內容物 以外에 公演回數라든가 時間 이것 몇가지 있는데 이것은 事實上 北側의 公演內容物과 密接히 聯關되어 있습니다.

北側이 公演時間을 3時間으로 固執하는 基本理由가 뭐냐하면 「꽃과는 處女」를 公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꽃과는 處女」公演時間이 3時間 程度 걸리는데요 그것을 하자고 보니까 이 公演時間을 3時間을 繼續 固執하는 거예요. 또 公演回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꽃과는 處女」 이것을 좀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公演回數를 갖다가 4번으로 하자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中心的인 것은 이 「꽃과는 處女」라고 하는 革命歌劇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代置를 하게되면 거기에 따라서 公演時間·回數가 自然히 調整이 됩니다.

만약에 北側에서 「꽃과는 處女」아닌 다른 代置物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 그 公演時間은 3時間 以下로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問題가 이처럼 그쪽으로 壓縮되어 있으니까 우선 公演物을 바꾸겠는가 안바꾸겠는가? 基本立場 變化 이것만 北에서 決定이 되면 그 다음 問題는 그저 만나게 되면 한 30分, 1時間內에 다 妥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러한 基本問題를 제껴놓고 우리 代表들이 앞으로 繼續 만나 봐야 結果는 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돌아가서

생각을 좀 다시하고 나오라는 그러한 提議를 한 것입니다.

質問: 이번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의 立場이 原來 先 本會談이고 그 다음 後에 故郷訪問團이었었는데 말이죠 그것을 讓步해 주면서까지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앞으로 1年後나 몇개월 後에 다시 시작되면 그 先 本會談 立場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 合意된 部分은 有効한 狀況에서 出發하는 것입니까?

答辯: 우선 이 本會談 關係는 이 第2次 「訪問團」事業하고는 別個입니다. 지난 3次 接觸時 本會談 날짜하고 第2次 「訪問團」 날짜를 合意할 때 이것을 別個로 合意했어요.

그러니까 北側 主張처럼 그렇게 連結시켜서 合意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本會談, 第11次 赤十字會談은 12月 15日 平壤에서 열려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側の 立場입니다.

그리고 本會談을 비롯해서 「訪問團」 날짜 이 時期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讓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讓步가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 우리는 當初에 本會談을 11月 1日날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北側이 자꾸 故郷訪問團을 먼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讓步를 해가지고 『그러면 12月 19日날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北側이 또 『12月 19日은 不適當하다 15日날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은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本會談 날짜 合意할 때도 우리가 두번 讓步를 해가지고 15日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5日이라는게 北側이 처음 내놓은 날짜예요.

또 지금 이 本會談과 關聯해서 雙方間에 意見差異가 있는 것이 하나

도 없습니다. 例컨대 本會談 代表團 構成·本會談 討議議題·代表團의 往來方法 및 節次 등등해서 本會談 開催와 關聯해서 雙方間에 지금 意見을 달리하고 있는 部分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도 自己들이 내어놓은 12月 15日 우리가 받아들였고 또 다른 部門에 있어서도 意見差異가 없는 部門이기 때문에 이 本會談은 豫定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立場에서 오늘 제가 다시한번 強調를 했습니다.

質問: 北韓側이 「꽃과는 處女」나 「피바다」를 公演하겠다고 固執하는 것이나 우리側이 그 內容上 受容할 수 없다 라고 버티는 것이나 두가지 모두 離散家族이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남을 위한 行事を 깨게 만드는 理由는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있는데 그 點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北韓側의 「꽃과는 處女」가 革命歌劇으로서 우리側을 刺戟을 한다면 특히 어느 部分이 問題가 되는지요?

答辯: 北側의 公演內容物로 因해 가지고 離散家族들의 念願이 담겨진 이 「訪問團」事業이 支障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第2次 「訪問團」事業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基本的으로 留意해야 될 것이 赤十字人道主義的인 次元에서 이 藝術團을 交換한다 하는 事實입니다. 赤十字人道主義라고 하는 軌道の 範圍안에서 藝術團이 오고가는 것입니다. 이 點을 우리가 看過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赤十字次元에서 藝術團을 交換할 때는 어디까지나 赤十字의 基本原則·精神에 符合되는 方向에서 實現이 되어야 됩니다.

赤十字의 基本原則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赤十字 「中立의 原則」을 이야기 했는데 그 밖에도 赤十字 「公平的 原則」이 있습니다.

이 「公平的 原則」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면 「赤十字는 國籍이나 人種이나 階級에 대해서 어떤 差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赤十字가 階級打破를 위한 道具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또 赤十字에 「人道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相互間에 理解와 友誼와 平和를 增進하는데 寄與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赤十字의 「中立의 原則」·「公平的 原則」·「人道의 原則」에서 北韓의 「꽃파는 處女」를 바라볼 때 어떤 結論이 나오느냐 하면 이것은 赤十字의 原則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다하는 結論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質問하신 바와같이 우리가 보기에 北韓의 「꽃파는 處女」는 세가지 性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階級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革命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政治理念性」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前에 北韓에서 出刊한 文學藝術辭典 또 百科全書 등등을 全部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會談場에서 北側 代表들에게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理解를 돕기 위해서 한두가지만 말씀드리자면 北韓의 文學藝術辭典에 「꽃파는 處女」에 대해서 어떻게 記述하고 있느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꽃과는 處女」는 人民들에게 革命鬪爭의 眞理를 깨우쳐주는 참다운 生活의 教科書로서 人들을 階級的 원수들과 搾取制度를 反對하는 聖스러운 革命鬪爭에로 힘있게 불러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階級的 원수」·「革命鬪爭」이것 分明히 나옵니다.

또 저쪽에서 나온 百科全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꽃과는 處女」는 主體思想과 主體的 文藝思想을 完璧하게 具現하고 있는 名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主體思想 具現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北韓의 文學藝術辭典에 「피바다」에 대해서 어떻게 說明하고 있는나?

『「피바다」는 壓迫民族과 被搾取階級이 自身の 解放을 위해서는 首領의 領導 밑에 손에 武裝을 들고 暴力으로 맞서야 하며 革命的 武力으로 反革命的 武力을 擊破해야 한다는 眞理를 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首領의 領導가 나옵니다 分明히.

여기에서 이 「꽃과는 處女」와 關聯해서 「階級的 원수」다 「革命鬪爭」이다 「主體思想」이다 「首領의 領導」라고 하는 말은 곧 「階級性」·「革命性」·「政治理念性」을 明白히 表示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赤十字가 「階級을 超越해야 된다」·「政治性 排除해야 된다」·「平和增進에 寄與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赤十字 本然의 精神·原則과 正面으로 違背되기 때문에 이러한 內容의 公演物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그런 立場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革命鬪爭과 人道主義는 兩立할 수 없다』 또 『피바다와 博愛精神은 調和될 수 없다』하는 말을 北韓 代表

들에게 하면서 姿勢 是正을 要求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質問에 대한 對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北韓하고 協商하면서 相對方이 있기 때문에 妥協을 짓기 위해서 讓步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讓步하는데 있어서도 限界가 있어요.

그 限界가 뭐냐하면 역시 지금 말씀드린 赤十字의 基本原則에까지 違背하면서 讓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點이 바로 重要的 點입니다.

그래서 北韓이 「꽃파는 處女」革命歌劇을 繼續 固執하는 限 이번 「訪問團」實現은 事實上 어렵습니다.

質問: 그런데 北韓에서도 말이죠 結局 電話로 連絡을 하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 分明히 말을 안했지만 그쪽도 우리側 한테 要求한 것은 그거죠? 受容할 姿勢가 準備가 되어 있으면 連絡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서로 姿勢是正을 要求하는 것 아닙니까?

答辯: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北의 主張은 다분히 억지입니다. 賊反荷杖이죠.

質問: 아니 北側의 意圖가 어떻든간에 그쪽에서도 남쪽에서도 그런 基本的인 立場이 바뀌면 電話連絡 해달라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事實關係가 요?

答辯: 지금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北側의 姿勢變化가 있을 때 連絡주면 만나겠다 했는데 뭐 北側은 우리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質問: 그런데 그동안의 會談에 왕왕 이 會談이 어느 程度 成熟 마무리 段階에까지 갔다가 말이죠 그 다음에 어느 程度 空白期間을 갖고 다시 시작할 때는 처음 原點에서부터 다시 出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會談도 지금까지 例를 들어서 300名・200名 되어 오고  
혹은 뭐 350名・150名 이 되었지만 數字가, 다시 1年後에는 이제 처  
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 다음에 再開할 때는? 그렇게 보아야되  
는 것 아닙니까?

答辯: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지금 速斷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北韓이 來日  
이나 모레라도 요 今明間에 姿勢를 바꿔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 接觸과  
會談은 지금의 延長線上에서 推進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가령 뭐 1年後라든가 2年後라든가 이렇게 많은 時間的인 隔  
差가 날 경우에는 역시 그때가서 생각해 볼 問題입니다.

質問: 北韓側이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 公演을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途中에서 國際狀況이나 南北關係의 變化 때문에 離散家  
族訪問을 成事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態度를 바꾼 것입니까?

答辯: 예. 그 點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6次接觸 過程에서 午前에는 저희가 이 規模問題 讓步  
를 해가지고 北側提案을 다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爭點이 되었던 規模問題에 관해서 妥結이 되고 이제 나  
머지 餘他 細細한 問題에 관해서 하나하나 合意가 막 되어가는 판국에  
北側에서 갑자기 막판에 가서 革命歌劇을 끄집어 냈다 하는 態度를 볼  
때에는 相當히 意圖性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問題 더군다나 이번 「訪問團」問題에 있어서 여  
러분들이 생각한 것은 「基本問題」가 있고 또 「節次問題」가 있는데요.  
基本問題에서 제일 重要했던 것이 일곱가지입니다. 그러니까 規模問題・  
訪問地問題・實況中斷問題 등등 일곱가지가 있겠습니까?

이 일곱가지를 우리가 다 讓步했습니다. 일곱가지를 우리가 다 讓步를 해가지고 合意를 시켜놓고 餘他 節次問題에 들어가서 우리가 折衷案을 냈죠.

지금 餘他問題가 걸려있는 것이 몇가지인가 하면 여섯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公演回數·內容 또 訪問對象者 選定問題·團長問題 등등 해서 한 여섯가지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北側의 革命歌劇 內容物 問題 여섯가지 있는데 이 未合意되어 있는 여섯가지 節次問題 가운데서 우리가 다섯개 部門에 관해서는 折衷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基本問題에 관해서 일곱가지를 다 들어주고 妥結시켜 놓고 또 節次問題 여섯개중에서 다섯가지에 대해 折衷案 내놓고 이렇게 막 좁혀서 마지막 妥結이라고 하는 局面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北側에서 갑자기 革命歌劇을 하겠다고 나온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北의 態度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짐작이 갈 것입니다.

質問: 만일에 北側이 公演內容問題 讓步하지 않으면 第2次 故鄉訪問團 問題와 第11次 平壤會談의 展望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 예.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北側이 오늘이라도 돌아가서 革命歌劇公演立場에 變化를 보이면 12月8日날 故鄉訪問團 實現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할 수 있어요.

1次 「訪問團」合意할 때의 狀況을 보면 「訪問團」交換 10日前에 「訪問團」의 名單을 交換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뭐 妥結만 되면 바로 名單交換하고 8日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本會談 關係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訪問團」

問題하고는 전혀 別個의 것입니다. 別個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北側이 招請者의 立場에서 15日날 開催하는데 協調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質問: 그러면 北側의 態度變化가 없으면 相互 訪問問題에 대해서는 赤十字 對話自體를 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別途의 問題라면 15日 本會談이라고 實務會談을 그 15日 사이에 北側에서 아무 變化가 없어도 여기서 提議할 겁니까?

答辯: 오늘 제가 이 本會談 關係는 豫定대로 開催된다 라고 하는 事實을 누누이 強調를 했는데 그런데도 不拘하고 北側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主張을 폈습니다.

아까 아마 記者會見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줄 압니다마는 그쪽에서도 第2次 「訪問團」事業이 先行되어야 그 後에 本會談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第2次 「訪問團」事業을 통해가지고 雰圍氣가 좋아져야 本會談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合意 事項하고 다릅니다. 우리 合意 그렇게 안했어요.

여러분 第3次 接觸 會談錄 오늘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第2次 「訪問團」이 되는 條件에서 本會談한다 라고 하는 그런 文句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 本會談 問題에 대해서 北側 團長이 그러더만요, 이제 本會談 열어가지고 한 두어번만 하게되면 다 妥結될 段階에 와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本會談을 늦출 理由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本會談도 豫定대로 열고 또 來日이라도 北側의 어떤 態度變化에 連絡이 오기를 期待하겠습니다.

質問：事實 뭐 지금 實質的으로 南北會談에 있어서의 모든 會談이 決裂되었다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狀況인데 事實 그런 엄청난 일임에도 不拘하고 우리 記者團들이 담당합니다.

그것은 어떤 意味에서 본다면 우리가 豫想했던 일이기 때문에 國際的인 흐름으로 보아 가지고 北韓側이 도저히 應할 수 없는 狀況일 것이다 라는 豫想值가 맞아 떨어졌다 하는 그런 氣分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不拘하고 이렇게 담당한, 그런 立場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그런 側面에서 또 그동안에 우리 代表團께서 여러가지 忍耐와 그런 努力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記者立場을 떠나서는 讚辭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一般國民들의 立場에서 보았을 때 最近에 특히 成熟된 그러한 統一熱望에서 보았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그런 失望感이라는 것은 相當히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意味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代表團이 비록 지금은 서로가 讓步할 수 없는 그러한 狀況에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남은 다른 餘他會談에도 큰 影響을 미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南北會談 全體의 決裂狀況으로 까지 갈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어딘가 뚫을 수 있는, 突破口를 팔 수 있는 새로운 方案은 摸索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그러한 南北關係에 있어서의 어떠한 方案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지금의 이와같은 局面을 打開할 수 있는 腹案 같은 것이 있느냐 하는 質問으로 제가 理解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赤十字間에 直通電話가 架設되어 있고 뭐 隨時로 電話連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것을 相當히 所重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오늘 狀況이 이렇게 좀 不滿足스럽게 나왔다 할지라도 결코 落心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른方法을 찾아가지고 막힌 구멍을 뚫기 위한 努力을 또 展開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方法으로 나올지는 좀 여러분께서 두고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특히 이 人道的인 問題가 南北關係 改善에 先導的 役割을 해 온 事實을 우리는 留念을 하면서 이번 이 狀況에서 우리가 落心하지 않고 또 다른 代案을 摸索을 하려고 하는 立場에는 別 變함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質問: 지금까지 말이죠 1차를 빼고는 여섯차례를 非公開로 進行을 했는데 물론 오고간 對話內容에 다 서로 確認할 수 있는 內容입니다마는 주고 받은 것 外에 말이죠, 뭐 글썄 그쪽에서 또 뭐 짐작하시기에라든지 다른 方法으로 서로 意思를 傳達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質問: 幕後接觸 與否요.

答辯: 지금 北側에서 團長個別接觸을 뭐 갖자 등등 해서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요. 우리側에서는 어떤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形式은 拘碍받지 않습니다. 뭐 團長끼리 만나도 좋고 아니면 代表들끼리 만나도 좋고 여섯사람이 만나도 좋고 또 뭐 秘密裡에 만나도 좋고 말이죠, 그 形式은 조금도 拘碍 안받습니다.

問題는 만나가지고 果然 조금이라도 뭐 進展이 있겠느냐? 이 可能性을 내다 보면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오늘 狀況을 제가 주욱 이렇게 놓고보면 北側에서 革命歌劇을 公演하겠다 라고 하는 立場에

는 추후도 變함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몇번 打診을 했어요. 만약 저쪽의 박단장하고 나하고 돌이서 조용히 만나면 무엇인가 좀 變化가 있을 것으로 내가 期待해도 좋겠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다시 만납니까?

質問 : 그 電話連絡의 期限이 언제쯤입니까?

答辯 : 電話요? 그것은 어쨌든 이 時間을 定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 때나 連絡하기로 한거죠.

質問 : 그래서 北에서 連絡없으면 赤十字對話「채널」 끊어버렸다고 判斷해도 되는 것입니까?

答辯 : 아니 그것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지금 赤十字間에 電話線이 늘 維持가 되고 있고 그리고 雙方이 各其 必要에 따라서 언제든지 電話를 합니다. 또 電話하면 받습니다. 그러니까 意思를 서로 傳하고 있습니다.

質問 : 지금 板門店에서 하고있는 4個의 對話「채널」로서는 北에서 그러니까 態度變化가 없는 限 끊어 버렸다 事實上 그렇게 判斷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答辯 : 그런데 그것은 좀 두고 보십시오.

感謝합니다.

## 〈北側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 1989. 11. 27 (月) 13:03 ~ 13:15
- \* 場所 : 板門店 北側地域 「板門閣」앞 階段
- \* 發表 및 答辯 : 박영수 團長

### 1. 記者會見文

오늘 接觸에서 南側은 먼저 우리의 藝術公演團이 公演하게 될 公演內容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公演內容을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을 主張해왔습니다.

이와 關聯해서 우리側은 雙方 合意事項에 비추어 볼 때 歌劇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라는 것을 再三 強調했습니다. 그래 이 問題와 關聯해서 우리가 전번에 合意한 藝術團 公演內容 設定에서 合意한 原則이 세가지 있습니다.

民族的인 것으로 한다는 것, 健全한 것으로 한다는 것, 相對方을 誹謗·中傷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 세가지 原則에 비추어 놓고 볼 때 우리가 歌劇 「꽃과는 處女」나 「피바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雙方 合意事項에 아무런 抵觸도 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強調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問題와 關聯해서 이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과 雙方 赤十字團體들 사이의 合意事項에 비추어 놓고 볼 때 역시 이것이 正當하다는데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赤十字 本會談에서 흘러진 家族·

親戚들 사이에 自由來往을 實施할데 대해서 合意를 하고 지금 現在 그 問題와 關聯한 合意事項들을 提出해 놓고 있습니다.

相對方도 그렇고 本會談을 앞으로 再開해서 한 두차례면 自由來往問題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리라고 다 展望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形便에서 앞으로 自由來往이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게 되어있는 이런 形便에서 自由來往이 實施되면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北에 들어와서 藝術團 藝術公演들을 수많이 보게 되겠는데 그때는 歌劇 「꽃과는 處女」·「피바다」 程度가 아니라 그 以上の 여러가지 藝術團 公演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前提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段階에서 歌劇 「꽃과는 處女」나 「피바다」를 우리가 南朝鮮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強調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問題와 關聯해서 이미 歌劇 「꽃과는 處女」나 「피바다」問題는 남쪽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진 問題라는 것을 우리가 注意를 환기시켰습니다.

무슨 뜻이나 하면 남쪽에서 지난해말부터 今年初에 들어와서 北의 出版物들을 公開할데 대한 方針을 내놓고 그것을 實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로동신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우리 出版物들이 남쪽에서 公開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꽃과는 處女」나 「피바다」歌劇에 대한 消息은 벌써 남쪽 사람들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속에서 具體的인 表現에 의하면 住民登錄證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벌써 다 열람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條件을 우리가 하나 考慮해서 우리가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고 이는 赤十字 人道主義 原則이나 本會談 合意事項에 비추어 놓고 볼 때 아무런 問題로도 될 수 없다는 것을 強調했습니다.

이와 關聯해서 兩側은 오늘 무슨 問題를 들고 나왔는가 하면 이 歌劇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는 自己側에 刺戟을 주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없다는 從前立場을 그대로 固守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다시한번 明白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刺戟問題라는 것이 이게 絶對 그 어떤 基準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아마 刺戟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基準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刺戟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은 刺戟으로 될 수 있고.

말하자면 이 問題는 그 刺戟이라는 表現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고무줄과 같은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그런 基準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 어떤 基準으로 될수 없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明白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刺戟으로 될 수 없다고 보는데 한 두 사람은 刺戟으로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結局 오늘 藝術公演 內容問題를 가지고 長時間에 걸쳐서 論議가 됐는데 合意點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머지 「訪問團」交換과 關聯한 實務的인 問題들, 訪問對象問題·「訪問團」成員들의 相逢方法問題 그리고 藝術團 公演回數·時間問題, 「訪問團」團長問題 이 問題들을 論議 했었는데 역시 이 問題에서 雙方사이에 意見이 좁혀지지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論爭過程은 이미 전번 接觸에서 대체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反復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故鄉訪問團 成員들의 訪問對象

選定問題에서 南側은 이미 지난 時期에 平壤과 서울에 故鄉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다는데 合意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 또다시 그 事實을 否認하면서 合意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結局 오늘 接觸에서는 나머지 問題들, 이 以外的 未解決 問題로 남아있던 問題들 가운데서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遺憾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問題인데 이 問題를 놓고 雙方 사이에 또 意見이 長時間 論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合意된 問題는 서로 相對方的 提案을 研究해가지고, 研究해가지고 차후 電話로, 電話로 連絡을 가져서 團長個別接觸이든지 代表個別接觸이든지 또 오늘 進行한 이런 實務代表接觸이든지 任意의 時刻에 가지기로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希望的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午後에라도 서로 電話 연계가 되면 來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조금 미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雙方 合意事項은 오늘 以上입니다. 이것 밖에 더 合意된 것이 없습니다.

以上 簡單히 그저 接觸進行의 定型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2. 質疑·應答

質問: 「교도」통신입니다 오늘 會談에 대해서 本會談에 대해서 問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具體적으로 이번에 訪問 自體가 안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本會談 自體도 안되는지? 그 合意는 나왔던 것인지?

答辯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双方사이에 合意된 大前提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번 實務代表接觸에 上程된 議題가 두가지 問題입니다.

「訪問團」交換問題・本會談 再開問題.

그래서 이 두가지 問題를 一括妥結해서 一括合意書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實踐하기로 合意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故鄉訪問團과  
本會談을 別個로 獨立시키지 말고 같은 테두리 안에서 두가지 事業을  
並行시켜서 進行해 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訪問團」交換이 年內에 不可能하게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미 전번 記者會見 때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訪問團」 交換 12月8일에 進行한다는데 대해서는 근 2달  
1달반전에 合意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이야기하는 過程에 서로 準備를 다 해간다고 합니  
다. 그렇기 때문에 來日이나 모레라도 이것이 合意되면 實踐, 實現될 수  
있는 事業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段階에서 어느게 안되면 어느것도 못된다는 소리냐? 이  
런식의 속단은 하지말자는 걸 제 意見を 말씀드립니다.

質問 : 만약에 假定해서 南側에서 「꽃과는 處女」를 받겠다고 그러실 경우  
에는 其他 자세한 다른 事項에 대해서는 異意없이 一括妥結하실 用意은  
있으십니까?

答辯 : 하나 그것 相當히 興味있는 質問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記者입니까?  
미안하지만.

質問 : 예, 全南日報의 金容海記者입니다.

答辯 : 오? 南則에서 「꽃과는 處女」같은 걸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

니까? 오늘은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質問: 그러니까 研究해서 電話로 連絡할 적에, 예를 들어서 오늘 午後나 來日이라도 그러한 合意를 해서 이쪽에서 研究해가지고 왔다고 그랬을 적에 그쪽에 電話通話を 했을 적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假定해서.

答辯: 그런일이 있었으면 빨리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餘他問題를 빨리한다는거야 그것 協議를 해야 되겠죠.

質問: 또 그러고 난 다음에도 協議가 되어야 됩니까?

答辯: 지금 提案上의 差異가 있으니까 協議야 되겠습죠.

質問: KBS 記者입니다. 지금 逆으로 質問을 드리겠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立場을 지금 質問을 했는데 逆으로 그 쪽에서 讓步하실 立場은 없으신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일단 電話로 個別接觸 내지 一括接觸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意味에서의 會談自體의 決裂로도 볼수가 있는 것인지?

答辯: 아니 絶對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거 會談決裂인게 아니라 이 上程된 問題討論에서 지금 膠着狀態에 빠졌습니다.

이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해서 우리가 提起를 한 겁니다. 우리가 提起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本 實務代表接觸이 지금 空轉을 몇차례 거듭하고 있는데 이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오늘 代表個別接觸을 가지고 意見を 좁히는 事業을 할 것을 提起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兩側이 처음에는 反對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우리의 또 다른 修正提議에 同意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團長個別接觸이든지

代表個別接觸이든지 열리면 거기에서 意見差異를 좁히기 위한 努力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質問: 그러니까 會談을 남쪽에서도 물론 讓步를 할 수 있는 것이고, 會談을 進陟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또 북쪽에서도 讓步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點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答辯: 그래 아까 첫번째 質問이 이걸 會談決裂로 볼 수 없는가? 그 質問이었지요?

質問: 첫번째 質問은 北韓에서 「꽃파는 處女」나 「피바다」를 하지 않고 다른 作品을 할 用意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答辯: 아 그 問題는 代表接觸이든가 團長個別接觸이든가 다시 모여앉게 되면 아마 意見 좁히기 위한 努力을 하게 될겁니다. 지금 이 段階에서 뭐 우리가 讓步할 意思가 있고 저쪽에서 讓步할 意思가 있고 이런 것은 論議할 段階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手끝들 했습니다.

